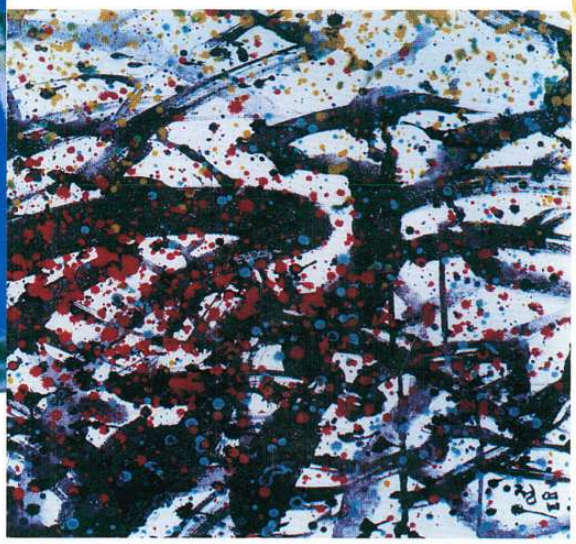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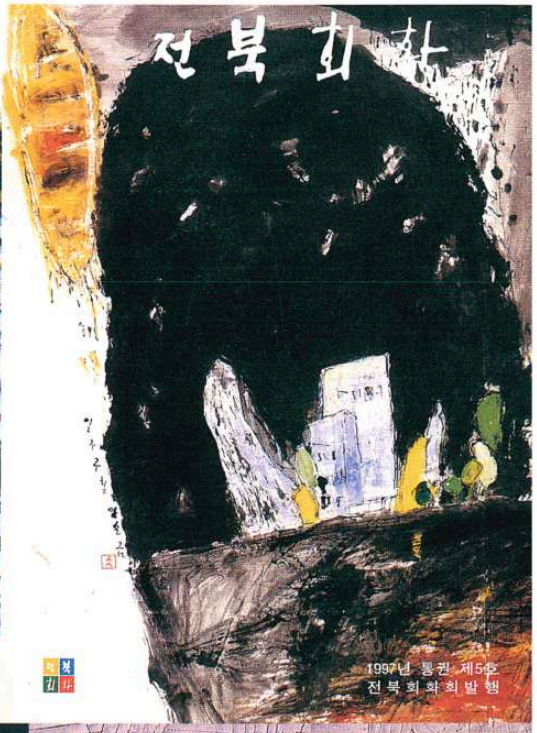
전북회화



통권 제 3 호
전북회화회발행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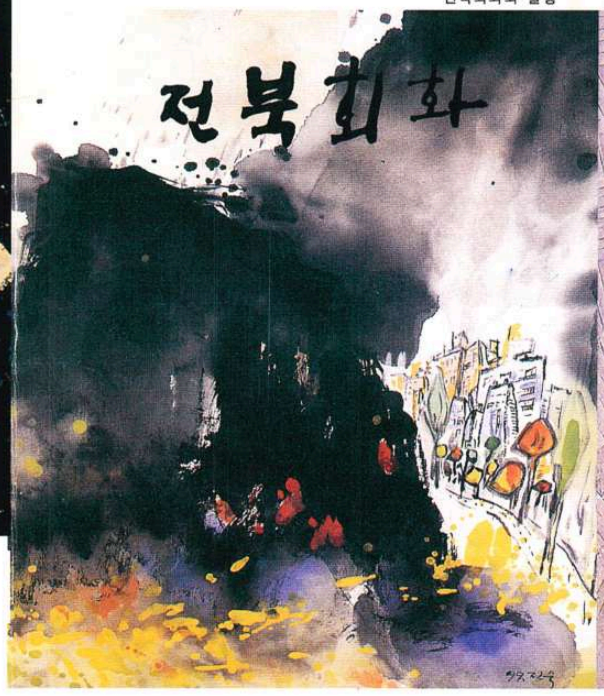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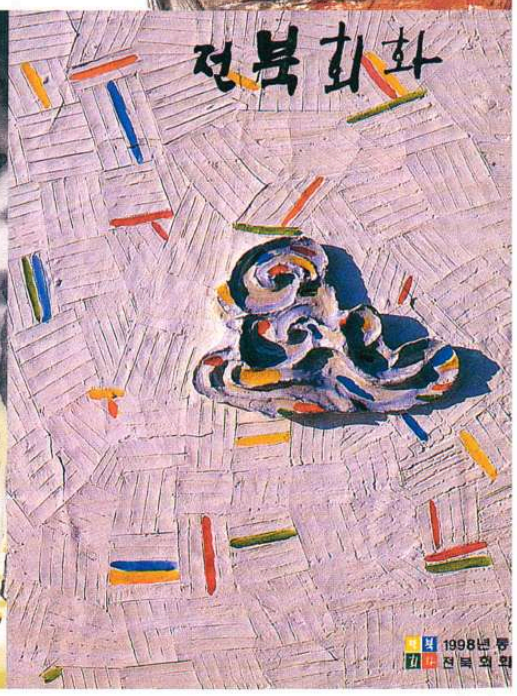
1997년 통권 제5호
전북회화회 발행

통권 제4호
전북회화회 발행



! 제8호
리 발 행





1998년 통
전북회화

2002년 통권 제10호
전 북 회 화 회 발 행



섬진강에 지다

강 연 호

가을 섬진강을 따라가려면
잠깐의 풋잠에 취해보는 것도 좋다
구례에서 하동쯤 지날 때
섬진강은 해가 지는 속도로 흘러간다
어쩌면 지는 해를 앞세우기 위해
강은 제 몸의 만곡을 더욱 휘고 싶을 것이다
여기서는 길도 섬진강을 따라가므로
갈길 바쁜 사람도 홀연 마음 은근해진다
나고 죽는 일이 괴롭다면 내처 잠들어
남해 금산 바닷물에 처박힐지 모른다
문득 깨어나 모골이 송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헛것이 이끌었다고 말하지는 말자
다 섬진강을 따라나선 죄일 뿐
정신 차리고 싶다면 쌍계사 절간 밑에서
은어회라도 바득바득 씹어보자
너도 먼 길을 취해 여기까지 왔구나
날것의 몸보시를 받다 보면
출가와 환속은 한통속처럼 저물 것이므로
그러면 또 삶이란 죽음이란

강 연 호
1962년 대전 출생. 고려대학교 국문과 및 동 대학원 졸업.
1991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으로 등단. 1995년 〈현대시〉 동인상 수상.
시집으로 『비단길』,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가 있다.
현재 원광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2002년 통권 제10호

전북회화

제자 : 효봉 여태명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CONTENTS

▶전북회화회 발자취		
▶전북회화회전		
▶축 사	이형구	6
▶축 사	조돈구	7
▶전북회화회를 바라보며	이철량	8~9
▶나의 작업노트	김 란	10
	김승호	11
	방정엽	12
	서진숙	13
	심소연	14
	이승훈	15
	이진숙	16
	이철규	17
	이환배	18
	정미현	19
	최병남	20
▶전시리뷰	심소연	21~22
	이진숙	23
	이철규	24~25
▶작업실탐방	김승호	26~27
▶특별기고	구혜경	28~31
	김용택	32~33
	곽병창	34~35
▶역사와 미술	이동희	36~38
▶한국화에 대하여	이승훈	39~40
▶전북의 젊은 작가	오세나	41
	채성태	42
▶나의 여행기	이진숙	43~44
▶읽을만한 책	편집부	45
▶문화가 탐방	편집부	46~47
▶전북회화회 회원주소록 및 편집후기		48

전북회화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이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전 · 북 · 회 · 화 · 발 · 자 · 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
	(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전북회화회전

- 섬진강을 따라서 -

김 란

김 승 호

방 정 엽

서 진 숙

심 소 연

이 승 훈

이 진 숙

이 철 규

이 환 배

정 미 현

최 병 남

- 전시일정 및 장소 :
  · 2002. 11. 22(금)~11. 28(목) 경원아트홀
- 초대일시 : 2002. 11. 22(금) 18:00

이 형 구

한국미술협회 전북지회 지회장

'전북회화회'에서 매년 발간해오고 있는 〈全北繪畵〉誌는 전라북도에 연고를 두고 있는 지역 작가들의 수필, 개인전 및 그룹전 동정, 소논문, 문화가 탐방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잡지의 발간은 이 지역의 젊은 미술인들의 의사소통, 작가관 정립, 역사인식 고취 등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 주년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10년의 세월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과 같이 이제 그 잡지의 지령이 또 다른 변신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북회화〉지는 그것이 비단 그 발간에 참여한 작가들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미술인 모두는 이러한 10 년간의 묵묵한 정진에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며, 또 주위의 여러 미술정보도 공유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미술문화의 질적 수준을 재고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미 있는 잡지가 그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면 논문의 게재량을 대폭 늘리고 수준 향상을 위해서 더 밀도 있는 토론문화도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법인이나 지방단체의 지원도 대폭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건승을 빌며, 〈전북회화〉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1월

조 돈 구
우석대학교 동양화과교수

올 해로서 전북회화회지가 발행 10주년이 되는 모양이다. 처음 초창기에 전북회화회에서 한 2년 동안 활동했던 나로서 도내 어느 그룹보다 전북회화회에 대한 애착이 많다. 90년대 초에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화단기류에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당차게 출범하였던 전북회화회는 그 위치가 확고히 정립된 인상을 준다. 많은 회원들이 들어오고 탈퇴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념을 같이 하는 골수분자만 남은 것 같다. 그들의 이념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말처럼 예향인 전북을 그림으로서 지켜내고, 그림으로서 역사를 읽고, 그림으로서 애정을 표현하였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서 매년 전북지역 내에서 역사와 삶이 숨쉬는 곳을 선정하여 그곳 향토사학자와 함께 답사를 하며 그림으로서 역사 읽기를 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이 땅의 소중함을 먼저 알아보자는 남다른 열정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북회화회의 이 고장 지킴이 역할과 역사 읽기, 애정이 있었기에 수많은 그룹들이 창립한 후 곧바로 사라지는 우리 화단의 풍토 속에서 단순한 친목의 형태를 떠나 이론적 연구와 작업을 병행해가며 10여 년을 지속해 온 원동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이 땅의 게다가 적지 않은 실적을 남기며 존속해 왔다는 것은 실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다. 대단하다 말과 장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을 뿐이다.

또한 명망있는 한국화 그룹으로 존재해오면서 전북회화회지 라는 잡지를 10여년 동안 꾸준히 발간해 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땅의 젊은 작가들에게"와 "문화초대석"같은 란은 원로작가와 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서 글을 받음으로서 전북미술 발전을 위하여 하나가되는 공동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작품발표의 장을 일반 팜플렛으로 제작하는 것 대신에 전북회화회지라는 잡지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타 그룹과는 다른 전시개념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읽을거리가 있는 팜플렛으로 새로운 전시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북회화회 그룹은 전북회화회지를 발간함으로써 회원들간의 상호교류를 돈독히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철저히 서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무리 없이 잡지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또한 연구하는 그룹으로도 그 인식이 확실히 굳혀가고 있다. 대부분의 그룹들이 단순히 친목의 형태를 떠나지 못하고 연중행사로 그림만 발표하는 데만 일관해 오고있는 현실에선 더욱 더 값어치가 있고 연구하는 그룹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였다. 전북회화회도 지나온 12년이 자리 매김의 시기였다면 앞으로 10년은 힘들게 만들어온 자리 매김을 새롭게 정립해나가는 시기로 만들어야한다. 전북회화회는 이 지역의 한국화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전북회화회에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다. 전북화단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기여를 해 달라는 그 바램인 것이다.

이제는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번 10주년을 정점으로 해서 전북회화회가 또 한번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2년 11월

전북회화회를 바라보며



새롭게 출발하려 신발 끝을 메는 젊은 후배들의 돌팔매는 가혹한 매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10여 년의 성과를 축하하며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

이 철 량 (전북대 예술대 교수)

전북회화회가 지난 90년 "중앙시장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주제 전을 가진 이래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 갔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말이 새삼 실감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회화회가 이번에 두툼한 책자를 편집하며 원고를 부탁하였는데, 아마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럴 만도 하다. 10년이면 시쳇말로 강산이 변한다고들 한다. 물론 강산이야 어디 가겠는가 마는 인심은 수시로 바뀌는 것 이여서 10여 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필자는 전북회화회와는 남다른 인연이 깊어 그간의 활동을 꾸준히 지켜봐왔던터라 더욱 감회가 남다르다. 이제 전북회화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지역 화단을 지켜오면서 그들 자신들도 많이 성장하였지만 어느면 이제 그들이 또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 새삼 확인해야하는 시간이 온 것이기도 하다.

지난 80년대는 사실 전북의 지역화단은 요동의 시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보수적이고 전통에 대한 집념과 자부심이 강했던 지역의 전통회화는 더욱 심한 것 이였다. 이 시기는 물론 미술에 있어서 만은 아니였을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던 가치관의 변화에서 기인되는 새로운 시대의 준비에 다름아니였다고 생각된다. 어떻든 전북지역의 전통회화는 그 수용의 갈등이 한층 깊어 혼란의 시기였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이였다. 이럴 경우 대개는 젊은 새로운 새대들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마련이였다. 이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먼저 전북회화회 회원들에게서 생겨났다. 그리고 시작한 전시가 "중앙시장 사람들"이었다. 중앙시장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평범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함축된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 것 이였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인 것 이였다. 중앙시장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자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역미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 그 이후 수없이 되뇌었던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말들의 깊은 의미는, 기실은 자신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는 자각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전북회화회가 제일 먼저 이러한 자각운동을 주도했으며 이후 그들은 " 전북의 산하" "교동의 표정" 그리고 " 전북의 인물", " 광복 50주년"전 등 테마전을 꾸준히 열어왔다.

이러한 테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북의 문화유적 기행"전을 열었고 한편으로는 우리미술에 대한 탐구를 위해 세미나를 갖거나 토론회 등을 꾸준히 열어왔다. 지역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결코 작지 않다. 전북회화회 회원들의 회화적 성과는 차치하고 그들이 꾸준히 벌인 우리미술에 대한 확인을 위한 일련의 활동은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이런 글에서는 의례 칭찬이나 자화자찬이 먼저 앞서는 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들의 그간의 노력이 결코 칭찬만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일 것이다. 당시 그들 원들의 나이가 결코 많지 않은 20대 후반이거나 30을 넘긴 작가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들 그림으로는 이제 막 사회에 첫 출발을 시작하는 젊은 나이의 작가들에게서 새로운 변화와 힘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느면

이러한 젊고 패기 있는 신세대들이 아니면 새로운 변화와 준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 이였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이렇게 시작한 이 지역 젊은 신세대들은 그들 스스로의 출발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의욕적이고 왕성하게 활동을 지속시켰다. 아마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형식의 틀에 맞추지 않고 각자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삶터와 이웃을 되돌아보고 그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며, 이러한 작업이 결국 내일의 새로운 발견에 다다를 수 있다는 믿음과 자각이 있었던 곳은 정말 흔치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노력을 자신들이 작업으로만 보여주지 않고 주변에 더욱 확인시키기 위해 작으나마 회화지를 만들어 배포하며 설득해 왔다는 노력 또한 값진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기를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성과만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작품 속에서 읽혀져야 하는 숙제가 남는 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 회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작품전을 가져왔고 작품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다. 그간 그들의 이러한 작업은 그들 선배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강요했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는 작업이였다. 그들 젊은 패기에 의한 시대의 변화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선배들에게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북의 전통미술이 그들의 시대적 욕구대로 변화되기를 바라왔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때로는 선배나 변화를 걱정하는 동료들에게 암묵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했을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질타와 외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발길질에도 10여 년을 버텨오면서 이제 그들은 나이에서도 이미 중진의 대열에 들어서고 말았다. 어느새 말이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를 먹고 말았다. 내가 느끼고있는 것을 아마 전북회화회 회원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새 밀려오는 후배들에게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모르는 사이에 벌 때처럼 달려드는 후배들이 있었다. 때로는 존경의 눈총으로 어떤 때는 허탈과 좌절을 느끼는 많은 후배들을 의식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회원들이 처음 출발할 때 선배들에게서 좌절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던 그때처럼 이제 한 때의 젊은 후배들이 자신들을 향해 돌을 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창작의 세계가 무척 지난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만약 10여 년 전의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적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돌이다. 어떤 때는 변화만이 능사냐고 위안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 위안은 될지언정 벌 때처럼 달려드는 후배들의 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외출할 때 수시로 가라 입는 겉옷처럼 외양만 바꾸었다고 변화라 할 수는 없을 터이므로 아마도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리라. 작품을 크게 전시하고 회화지를 두껍게 만들었다는 것은 변화의 계기를 노린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으로 칭찬 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80년대가 요동치는 시대였다고 해서 90년대가 안정된 시기였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이 활동해왔던 지난 10여 년도 따지고 보면 내외적으로 소란한 시기였다. 물론 앞으로 10년도 지난 시기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에게 있어서 시대는 항상 극복해야하고 도전해야하는 대상이지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회화회가 앞으로 10여 년을 또 새롭게 준비하는 도전의 신발을 신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주장이 작품을 통해 설명되기를 소망한다. 전북회화회 회원들이 선배인 나를 평가하고 비판해 왔듯이 나 또한 완곡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결코 이 정도에서 안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 신발 끈을 메는 젊은 후배들의 돌팔매는 가혹한 매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어떻든 이제 글을 끝내야 하므로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 같다. 그간 10여 년의 성과를 축하하며,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 이건 내가 회원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진심 어린 인사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김 란

·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중국북경중앙미술학원 화조화 진수, 석사연구생 졸업
· 개인전 2회
· 한가람 미술대전, 한국미술 2000년전
· 문인화정신의 새로운 인식전, 본향전, 한마음전
· 2000 제주국제미술교류대전
· 전주대학교 교수작품전, 새천년 한국화오색전
· 2000 전라한국화제전, 동방현대 채묵화전



사랑 / 한지.수묵담채

사 랑

삶의 기운속에 흐느적거리는 형상이 보인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진정한 진실을 알고 깨우치는 기운으로 느껴지는걸까?

그림속에 푹 빠져드는 그런 경쾌한 마음으로 그림과 연애하고 사랑하고픈 마음으로 오늘도 이 세계와의 만남을 가진다.

이렇게 화끈한 화가의 마음으로 삶의 자체를 즐기고 싶다. 어느 인용구에서 나오듯 "때론 부드럽게, 때론 독하게, 때론 은은하게" 다가오는 그 삶과의 사랑을 느끼련다.

〈김란 「작가노트 중에서」〉



김 승 호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97 1회 개인전(기린갤러리)
· 99 2회 개인전(전북예술회관)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전북예술회관)
청년작가 위상전(전북예술회관)
겨울미술제(전북예술회관)
· 2000 새천년 오색전(전북예술회관)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3회개인전(전북예술회관)
모필의 생명력전(전북예술회관) 그외 초대전 및 그룹전 다수 참여



수묵여행-섬진강松 / 요철지 수묵

섬진강 松

유유자적 흘러가는 강물따라 마음도 따라간다

홀로 외로이 서있는 소나무가 내 마음속 감추어진

그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한다.

외롭기는 매 한가지인데

그대의 너그러움이 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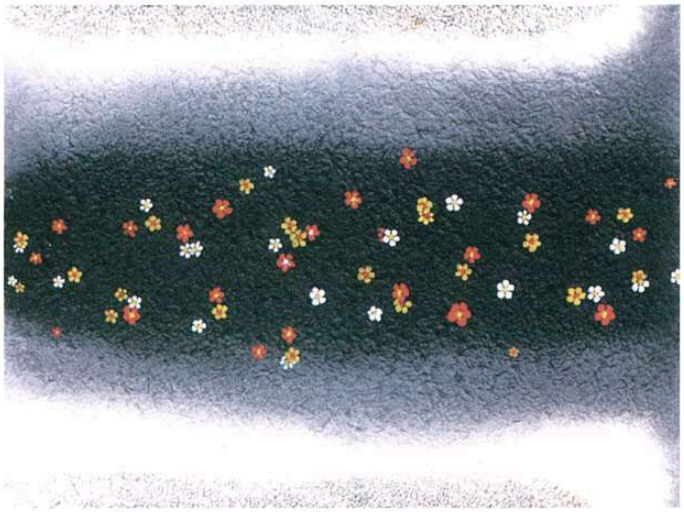
방 정 엽

·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한번의 개인전 및 다수의 그룹전, 단체전 등에 참여
· 현) 전북회화회, 한국미협 회원

강 가 에 서

그대,
섬진강에 가본 일이 있는가.

아직은 이른 봄
매화꽃잎 강물 따라 흐르는
강마을에 가본 일이 있는가.



세월-꽃이지네 / 겹한지, 수묵채색

아카시아 향기 山河를 물들일 때
東侯 장구목 아줌마의 花煎에 막걸리 한사발 들이키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다 본 일이 있는가.

장마 비 뿌리던 어느 날
압록 다리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 본 일이 있는가.
이골 저골 황톳물 모여
세차게 밀고 내려가는
그 莊嚴함을 본 일이 있는가.

초가을 陽光이 눈부신 날
노오란 들 옆에 끼고 流流히 돌아가는
푸르디 푸른 강물을
눈이 시리게 본 일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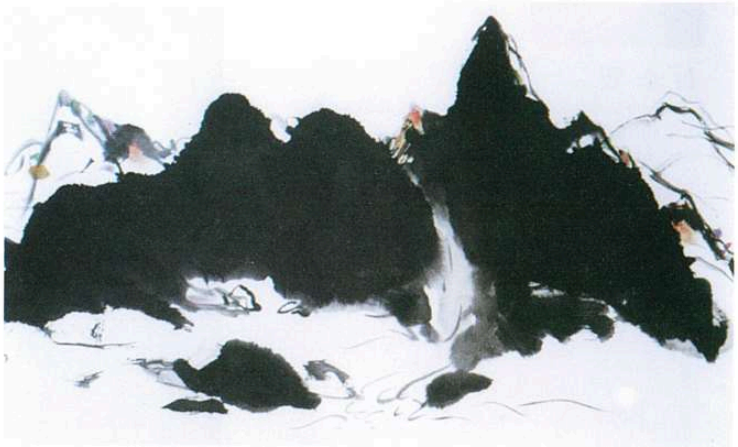
아니,
아무 것 가진 게 없을 때라도
섬진강에 가볼 일이다.
어머니의 품처럼 溫和한 모습으로
南道 땅 숨결을 담아 흘러내리는 이 강변에서
한 번 쯤은 인생의 悔을 돌이켜 볼 일이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 볼 일이다.

〈民中 방정엽〉



서 진 숙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초대전 및 단체전 60여회 참여
· 개인전 1회
· 현) 한국미협,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회원
삼례공업고등학교 재직



섬진강 / 수묵담채

억새사이로 부는 바람처럼...

누가 삶은 아픔이라 했던가?

맞고 보내는 게 인생이라 했던가?

저 강변의 억새사이로 부는 바람처럼 잔잔하게 살고 싶은 마음.

나에게는 유난히도 힘들었던 한 해

일제의 패망과 남북 분단으로 좌우 갈등이 심한 지역으로 여순반란사건 이후 빨치산 투쟁의 주요 거점이 되기도 했던 곳, 섬진강

오랜 세월 동안 수난을 겪으면서도 그 동안의 고난을 잊은 듯 유유히 흐르는 저 여유로움과 물안개가 아침보다 먼저 내려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풍경처럼 좋은 기억, 소중한 기억, 깊은 산속의 야생화처럼 향기 발하며 살고 싶다.



심 소 연

·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
· 2002 개인전 제한된 자유(서신갤러리, 전주)
· 1999 그룹전 및 공모전 미술세계대상전(서울시립미술관)
기운전, 경인미술대전, 문인화 정신의 본향전
· 2000 미술세계대상전(서울세종갤러리)
기운전, 전국벽골한국화특별대전, 전북현대미술제
봄의 소리전, 표현과 매체전, 표현의 다양성전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특선(서울디자인진흥원)
전라북도미술대전 특선(전북예술회관)
· 2001, 2002 찾아가는 미술전



근원-10월의 섬진강 / 장지에 채색

10월의 섬진강

10월의 섬진강은 모든 것이 무리없고 유려하다.

바위, 거친 갈대풀, 잔잔한 수면 등 모두가 담담한

고요함을 확장시키고 있다.

가슴을 잔잔히 두드리는 그 울림,

가슴속까지 뒤흔드는 여유로움이 파동이다.



이 승 훈

· 전주대학교 대학원 졸업
· 개인전
· 전주대학교 교수작품전
· 중등미술교사전
· 향토작가초대전
· 한국의 자연전
· 전북의 자연전
· 산묵회, 지붕전 출품



섬진강 / 지본채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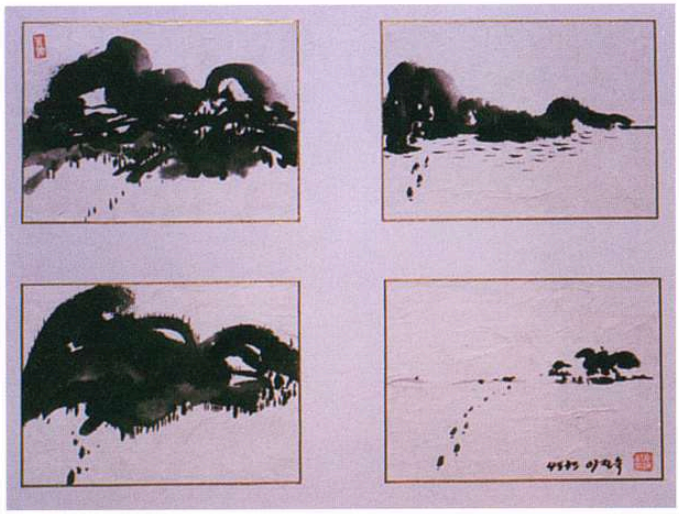
섬진강, 남도 500리 회상

섬진강이 흘러 흘러 5백리길을 가면 남해 광양제철소 있는 광양만을 만나는디, 섬진강물이 임실군 덕치를 흐르고 옥정호를 내가 만난 것은 대학 다닐 때이다. 20여년전 일이다. 그 외진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KSJ 형님과 하루밤 묵었던 곳이다. 매혹의 산골 냄새가 너무 인상 깊었다. 감이 있고 고구마와 수수가 쪄서 나오고, 인심 좋은 동네 사람들이 좋았던 곳이었다. 다음날엔 섬진강 시인인 KYT 선생님을 만나고 집에서 창작에 몰두 하시던 모습과 이야기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그땐 유명세 있는 시인은 아니 었으나 구수하고 친근하시어 툇마루에서 건네주던 감도 먹고, 소개해주던 들길도 걸었고 섬돌 같이 잘 다듬어진 징검다리도 건넜었다. 그 곳엔 詩가 묻혀 있다. 그 시를 가슴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립다.



이 진 숙

·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개인전 5회
· 단체전 다수 참석
·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다수
· 현) 완산중학교 교사, 전북회화회, 원묵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옥정호에서 / 한지.수묵 담채

고 향

언제든 돌아가고 싶다
고향 땅에.....
그래도
갈 수 없다. 그는

어떤 이들은
삼팔선 북한 땅에
통일이 되는 그날
기뻐서 울며불며 달려갈
고향이 있다.
그러나
그는 통일이 되는 그날에도
그 곳에 갈 수 없다
여기에 큰방이
여기는 장독대
아! 저 곳은 아마도 뒷간이
참, 이곳은 할머니 방이.....
하면서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르킬뿐.....

그는 오늘도 그곳에 있다.
밟고 싶어도 밟을 수 없는
그곳에

옥정호 깊은 바닥에
그의 고향이 있다.

〈옥정호를 바라보며〉



이 철 규

-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및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 개인전 8회
- 전북 청년 미술상
-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본상
- 전북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역임
- 단체전 200여회 참가
- 현) 전북회화회, 시공, 우묵, 미협회원
  예원 대학교 조형미술학과 재직



서풍아! 불어라 / 한지에 수묵

섬진강 바람! 서풍아 불어라!

지난 해 11월! 늦가을 이 맘 때쯤 지리산 피아골로 스케치 여행을 갔었다. 돌아오는 길!! 섬진강 따라 고불고불 돌아오는 길! 제대로 가을을 만끽하는 여행이었다.

섬진강은 그 정겨움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는 정취가 다 다르다. 작년 가을의 섬진강 여행은 나에게 늦가을 정취를 고스란히 전해주었다. 해가 진 후 달빛을 조명 삼아, 둑을 무대삼아 스산한 강바람에춤을 추듯 흔들리는 대나무 숲은 잊혀지지 않는 풍경이었다.

섬진강은 호남과 영남을 이어주는 강이다. 화합의 강이다. 화개 장터에는 영, 호남 화합의 장이 열리고있다. 이는 섬진강이 주는 화합이라는 큰 선물이며 세지는 않지만 대단한 바람-서풍-이다.

화합의 바람! 섬진강바람!

서풍아 불어라! 이 나라 이 땅에 "지역감정"이라는 말을 깨끗이 쓸어 가버려라!
섬진강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대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춤을 추듯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환 배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
- 한국화 2인전(전북예술회관)
-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시립미술관/서울)
-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전(홍갤러리/서울)
- 정선아라리회화제(백상갤러리/서울)
- 우리의식공동체전(문예진흥원/서울)
- 의식의 확산전(예술의전당/서울)
- 감성표출전(인테코화랑/서울)
- 동악 71~94(운형궁미술관/서울)
-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종합예술회관)
-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 전) 전주예고출강
- 현) 전북회화회 의식의 새물결회, 동국회화회 회원

섬진강의 여름



잠시동안 이지만 오늘은 첫눈이 내렸다.
삭막한 회색 빛 인도위로 노오란 은행잎이 가을자리를 조금씩 조금씩 메워가고 있구나!!!
매서운 겨울이란 놈이 저 멀리서 너무도 빨리 달려와 형형색색의 들녘을 짚어 삼킨다.
지금쯤 섬진강 주변에도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대롱대롱 매달린 빨간 감처럼 쓸쓸해 보이겠지.
아 그립구나 그곳의 싱그러운 바람이 내 마음을 한번 씻고 지나가는 그 느낌들이!!!
불어라 바람아 이 세상의 모든 오염된 것들을 저 먼 우주공간으로 끌고 가려무나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맑고 순백한 것들로 가득하게.....

2002. 11. 9



정 미 현

· 개인전 6회
· 단체전 및 초대전 80여회 참여
· 현)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미협회원



유유히 흐르는 강 / 천에 수묵

섬진강...

진안군 마령면 원신암마을이 이 큰 강의 발원지라 한다.

얼마전 아이들과 마이산에 갔었다. 은수사에 들려 약수를 한 모금 마시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여기까지 왔으니 위에 있는 물 한 모금은 하고 가야지요" 하며 던지는 말 끝에 그곳에 가보니 "섬진강 발원지"라는 작은 글씨가 보였다. 여러 차례 이 곳을 지나쳤지만 무심코 보았던 작은 샘물이었다. 우리 일행은 조그만 표주박에 그 물을 담아 한 모금씩 마시며 으쓱한 기분으로 웃으며 내려왔다.

진안 마이산 꼭대기의 물이 흘러 강물이 된다니... 그려보고 또 그려보았다. 내 머리끝 정수리에서 한방울 뚝! 흘러 내 온 몸을 휘감으며 내 육신의 원천이 되어주듯, 은수사의 그 샘물도 전라도를 휘어 감고 저 먼 땅 하동을 지나 광양만으로 흘러 바다를 이룬다고 한다. 얼마나 장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인가?

아름다운 산천을 꿈꾸며, 정겨운 얘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름진 옥토 속에 스며들면서도 마르지 않는 섬진강을 따라가 본다.

나는 곡성의 압록 물줄기를 좋아한다. 점잖으면서도 수줍은 색시 같은 가끔은 거친 물살로 뒤집히며 성도 내지만, 언제나 유유히 흐르는 압록의 물줄기를 먹빛에 비추어 그려본다.



최 병 남

·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 및 경희대학원 졸업
· 개인전 5회(청갤러리, 남태평양 피지, 전북예술회관, 갤러리고을)
· 대한민국 미술대전입선 4회(국립현대미술관)
· 전라남도 미술대전 특선(남도예술회관)
· 전국 춘향미술대전 특선 3회(춘향문화예술회관)
· A.A.I 국제미술전 장려상(캘리포니아 산로스 아트센타)
· 순천 뉴코아백화점 초대전(순천 뉴코아백화점 전시실) 등 다수
· 현) 동행회 회원, 전북회화회 회원, GROUP 2 Member,
춘향미술대전초대작가.

이땅의 아픈 역사를 안고 도도히 흐르는 섬진강



정 · 반 · 합-섬진강이야기

섬진강은 강유역의 사람들에게 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다 주면서도 마르지 않고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는 질긴 강의 애환을 간진한 곳이다.

매화 향기 그윽한 광양 매화마을, 노란 꿈의 향연을 벌이는 산수유 마을 화개십리 벚골길, 차향 그윽한 화개의 차, 섬진강의 은어 이야기, 하동의 재첩, 곡성 압록에서 잡아올린 참게의 진미, 그리고 피아골의 단풍, 남원의 광한루 등 섬진강 줄기를 따라 주변에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그리고 가을이면 지리산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지만 특히 피아골의 아름다운 단풍은 참으로 아름다워 찾아오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이처럼 섬진강 주변에는 사시사철의 아름다운 멋을 잃지 않고 맛 또한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한다.

이땅의 아픈 역사를 안고 도도히 흐르는 섬진강!

이제 섬진강은 마냥 순종만 하는 미덕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일찍이 섬진강 유역은 남도의 풍류와 멋을 간직한 곳이었고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져온 지리산과 사이좋은 오누이처럼 손 마주 잡고 초연한 모습으로 우리곁에 내재 되어 있었다. 섬진강은 모두 퍼다 주면서도 실핏줄같은 개울물이 다시 모여 유유히 흐르면서 강의 위엄을 잃지않고 있다.

마르지 않고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섬진강 유역을 삶의 터전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다.

민족의 성지인 지리산을 휘감고 도도히 흐르는 섬진강.

섬진강은 화려한 색채와 세밀한 형체로 표현되길 싫어하고 물체의 생명적인 본질을 포착한 단순한 선을 유희하려는, 그리하여 간결하면서도 숙달된 넉넉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자연에 도전하는 인간의 지식은 사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인간의 자연성을 귀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섬진강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화선지에 그어지는 일획 일획은 화선지의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화선지의 공간을 벗어나는 영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듯이 섬진강은 굽이 굽이 흐르는 선율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 산자락의 형상을 내품은채 그 밑을 감도는 구름이나 안개가 갖고 있는 신비한 힘을 섬진강은 다가가 끌어 안고 있다. 새삼 송대의 유명한 산수화가인 곽희의 〈화가의 자연적 흥취〉에 대한 문구가 생각난다.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화가는 자기의 영감을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 구름낀 봄날에 술을 마셔도 좋고 꽃이나 새의 모양을 관찰하거나 시를 읊으며 산책을 하거나 향을 피우며 차를 마셔도 좋다. 영감이 떠오르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 손은 본능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면 종이를 펴 놓고 붓을 들어 그 영감을 종이에 옮길 준비를 한다. 만약에 영감이 없어지면 그림을 중단 했다가 다시 영감이 떠오를 때에 가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러면 그림은 결과적으로 빼어난 것이 되며 기운이 넘쳐 흐르게 된다." 이처럼 섬진강은 우리의 영감을 길러주는 어머니의 모성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

보슬비가 잔잔하게 내리고
노란 은행잎이 바람결에 흔날리는 이 가을에
섬진강의 넉넉한 자락에 다가가 전착하고 싶다.
고요하고 맑은 정화의 강에.....
그리고 그 순수의 이름으로.....

심소연 개인전

- 박래현의 추상회화 연구 -

· 전시기간 및 장소 : 2002. 4. 24~4. 30(서신갤러리)

우향 박래현(1920-1976)은 한국화단에 있어서 근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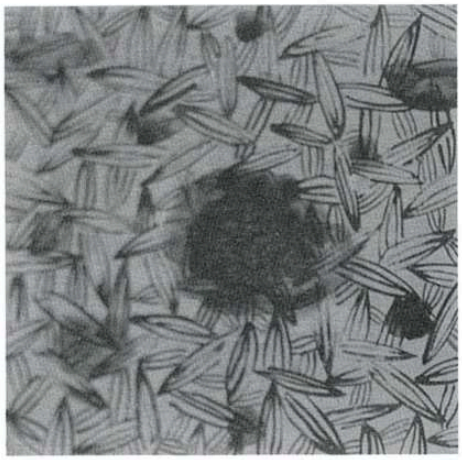
박래현이 활동한 시대는 해방과 전란을 거치면서 와해된 질서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시대였으며, 한국 화단 역시 조형적 이념을 수용하면서 다양성이 형성된 시기였다. 박래현도 개인적으로 비구상 경향을 보이며, 그 이전의 일본 화풍을 벗어나고자 실험적 작업을 모색하였다. 앵포르멜을 비롯한 서구 미술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자신의 끊임없는 창조 정신에 의해 독자적인 작품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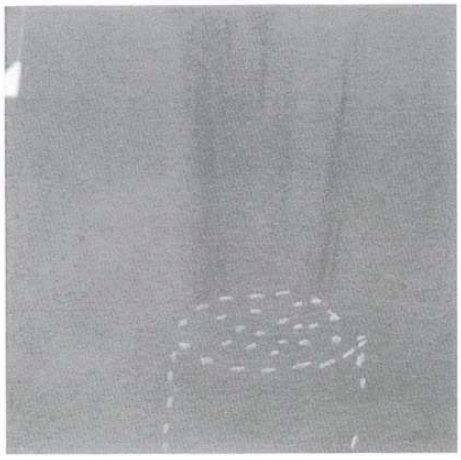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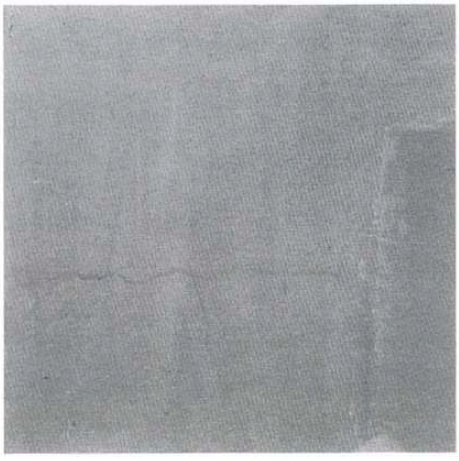
박래현의 추상작품으로의 변화 과정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박래현의 초기 작품은 일본 유학에 의한 일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구상적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때는 자신의 화풍을 구축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1950년대에는 일본화 경향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실험 제작을 해야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작품을 변형하기 시작하여 반추상적, 입체적 작업을 시도하였다. 작품으로〈달밤〉,〈노점〉의 연작과 〈이조여인상〉의 연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그림들은 한국적 소재를 선택하지만 제작 기법은 서구 화단의 영향을 받았다. 1960년대 들어가면서 선은 부드러워지고 대상을 과장, 왜곡되게 표현하며, 화면 구성을 복잡하게 나타냈다. 이때는 전통적인 정신이나 동양화물감을 사용하면서 화면에 흘리기, 번지기 기법으로 묘사하였다. 박래현은 한국적 전통 사상과 재료를 사용하면서 서양의 기법을 병행하여 새로운 추상화를 창조하였다. 작품으로는〈여인과 고양이〉, 〈정물〉 연작이나 〈작품〉의 시리즈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박래현의 변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전통 회화적 요소 속에 현대 미술의 새로운 기법을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알 수 있다. 박래현은 새로운 조형 의식

의 연구로 끊임없는 실험적 시도를 하여 기존의 동양화의 답습적인 기법과, 제한된 소재와 표현 방법을 탈피하고 서구 미술을 도입하여 면을 해체하거나, 분할하여 입체적 표현을 하였다. 또한 동양화 재료를 이용한 번지기, 흘리기 기법으로 대상을 묘사하여 발묵의 효과를 선(線)적으로 표현하였다. 판화나 타피스트리에서 보여준 파피에 꼴레, 꼴라주, 앗상블라주 등의 현대적 표현 기법과 한국적 토속 재료인 엽전꾸러미, 맷방석 등의 소재를 조화시켜 박래현만의 독자적인 실험 제작으로 새로운 조형 예술을 구축하였다.

박래현의 작품의 특징은 크게 동양 정신에 근거한 한국화를 현대적 미감으로 제작한 것과 서구 추상회화에 근거한 동양적 추상성의 표현이라 하겠다. 이처럼 끊임없는 실험 제작으로 새로운 예술에 심취하였다. 박래현은 동양화의 비구상과 추상 세계를 탐구한 노력으로, 한국화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이 한국 화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고, 많은 실험을 통해 얻은 조형적 성과와 열정은 후대에 지속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박래현이 이룬 조형 세계와 미술사적 업적은 대단한 의의를 가진다.





이진숙 개인전

· 전시기간 및 장소 :
2002. 11. 15~11. 21(경원아트홀)

친정 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갔다는 전화를 받았다. 한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떨구었다. 그리곤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응급실에 갔다. 연신 허공을 향해 손 사레를 치시는 모습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모습에, 우리들은 그저 지켜만 보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할 뿐이다.

병실로 옮겨 며칠을 지내고 다시 중환자실로, 초점을 잃은 눈이 허공을 응시한다. 그러기를 보름여, 다시 병실, 퇴원, 그리곤 다시 입원 등등 그 와중에 그는 그간 미루던 발목 수술을 했다. 더 이상 미루다간 영영 다리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달 여의 입원, 목발에 의지한 출근, 그는 지금도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출근을 한다.

유난히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그것도 모자라 나는 작품 전을 감행했다.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서..... 점점 일이 어려워짐을 느끼고 내 능력의 끝이 너무 가까이 있음에 탄식을 했다. 오기와 고집으로 시작한 작품준비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온다. 그럴수록 발동하는 오기, 그래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시는 일어날 힘이 없을꺼야.

인공 신장실에서 고통을 느끼면 투석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절름거리며 힘들게 출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내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만 했다.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작업에 매달렸다. 그것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었다. 하나씩 하나씩 내 붓끝에서 나오는 녀석들은 밝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귀부인의 모습으로.....

화려한 시절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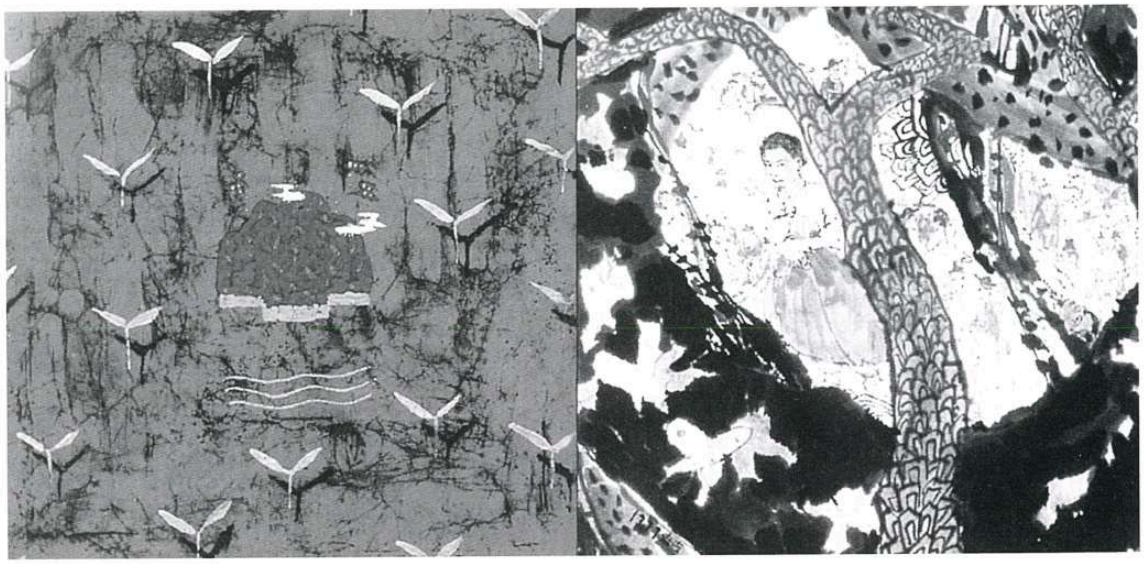
이제는 기다리는 마음을 접어야 하겠다.

〈2002년 5월 어느 날 작업실에서〉

이철규 개인전

· 전시기간 및 장소 : 2002. 5. 1~5. 7(예술의전당 전시실)
2002. 8. 23~9. 13(The Annex Gallery)

수묵 산수와 채색이 병치된 화면구조 상에서는 수묵이 지닌 사변적 관념성과 채색의 장식적인 구체성이라는 상호 이질적인 속성들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거기에는 전통과 현대, 음과 양, 형식과 내용, 입체와 평면, 구상과 추상, 형상과 문자, 사의성과 형사성이 모두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세트로 조합된 화면도 각자가 지닌 독자적인 개성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 채색의 동적인 면과 수묵의 정적인 분위기의 시각적 대비 효과는 극단의 조화로운 화음을 구사하는, 일종의 수묵과 채색의 이중주로 비유됨직 하다. 모두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세트로 조합된 화면도 각자가 지닌 독자적인 개성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 채색의 동적인 면과 수묵의 정적인 분위기의 시각적 대비 효과는 극단의 조화



로운 화음을 구사하는, 일종의 수묵과 채색의 이중주로 비유됨직 하다.

모두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세트로 조합된 화면도 각자가 지닌 독자적인 개성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 채색의 동적인 면과 수묵의 정적인 분위기의 시각적 대비 효과는 극단의 조화로운 화음을 구사하는, 일종의 수묵과 채색의 이중주로 비유됨직 하다. (손청문 / 미학박사, 미술평론가)

인간은 이상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삼신산, 무산십이봉 등을 정원에 옮겨 왔다. 또한 그림을 그려서 항상 완상을 하였다. 선계(仙界)다운 절경을 담은 18세기 진경산수의 배경에는 조선 선비들의 기행 탐승하는 풍류적 성향 및 이이(李珥)의 석담구곡(石潭九曲), 송시열(宋時烈)의 화양구곡(華陽九曲), 김수증(金壽增)의 곡운구곡(谷雲九曲) 등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받아 그것을 조선산천에서 실현하고자 한 이상주의적 은일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에 이르는 그림 중 하나가 도원류의 그림일 것이다.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같이 안중식의 도원문진(호암미술관 소장)과 그 제자인 이상범으로 이어지고 변관식의 무릉도원 그림도 도화촌을 그리고 있다. 도화촌이 없다 할지라도 산수화의 대부분은 빼어난 승경지요 아름다운 곳이며 영원한 고향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실경이든 관념산수이든 산수화에 녹아 있는 세계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묻어 있는 것이다.

수묵산수화가 중국 회화사에 나타난 것은 당말오대를 전후한 시기이다. 당대 이전에는 거의가 인물화의 배경으로 그려지다가 새로운 인식으로 산수화가 대두되었다. 노장사상과 위진현학(魏晉玄學), 그리고 산림문학(山林文學)을 그 배경으로 하여 자연주의가 형성되면서 독립된 그림 양식으로 발달하였다. 代末 宋代 전시기에 걸쳐서 산수화는 꾸준한 발전으로 원대에는 사대가 모두가 산수화의 높은 경지에 이르고 청대까지 그 전성기를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고려조의 불교시대가 끝나 가는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수화는 강한 채색을 주로 하는 청록산수화와 금벽산수로부터 점차적으로 수묵이 주류를 이룬다. 산수화에 많이 나타나는 전통 소재는 금강산전도, 계회도, 탁족도, 사시팔경도, 소상팔경도와 적벽도 등이 있다. 동양인의 대자연관을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그림 양식이다.

현대 산수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 마음속을 염원하면서 감상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재현하여도 획기적인 기법과 개성이 나타난 그림일지라도 그 본연의 바탕에 고향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출저 생략)





이철규 전시리뷰

김승호 작업실 탐방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화폭에 옮겨 그린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지고, 모든 면에 부족하다는 마음자세로 임하고 있는 김승호 작업실을 찾아서....

우리 인간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이란 미명아래 우리 주변환경을 아무 생각 없이 파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말없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변환경에 관심을 갖고 보존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를 자연에게 보여 줄 때라 생각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산하는 어느 곳에서든 생성과 소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막 새싹을 피우려고 몸부림치는 들판을 보았을 때 척박해 보이지만 감추어진 내면의 생명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논과 밭보다 산비탈을 개간해서 만든 논과 밭은 생명력과 더불어 조형미까지 있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산불이 나서 백두대간의 산허리가 황폐화 되었습니다. 환경론자들과 학자들은 제 모습을 찾는 데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황폐화 된 산에서도 새로운 생성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연을 보았을 때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주천의 수양버들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면서 베어버리고, 태풍에 꺾이고,

봄이면 나무가지치기를 자주 해 나무형태 자체가 변해버렸습니다. 고유의 모습을 잃어가는 수양버들을 보면서, 그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유년시절이 생각납니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변형된 수양버들에서 비록 몸체는 텅 비어 소멸되고 있지만 새로운 생성을 위해 몸부림치듯 솟아나는 가지를 보면 끈질긴 자연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가지를 보았을 때, 부드러움 속에 감추어진 내면의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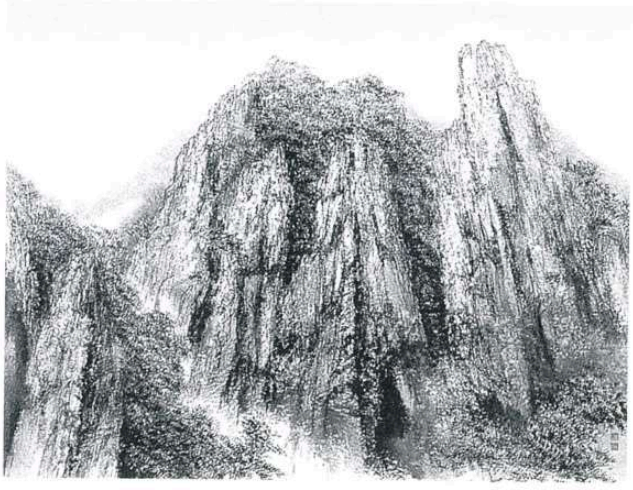
최근 우리 사회는 우리 것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그 동안 무분별한 외래문화 수용이 낳은 반감일까? 아니면 여유가 생겨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우리 것에 대하여 자성하는 마음으로 되돌아 보는 것일까? 뭐라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화를 전공한 나 또한 인식을 같이 하고 그 동안 했던 작업과,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에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한국화의 근본이 되는 지, 필, 묵 만을 가지고 하자."

"우리 주변에서부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작업에 임하자."

'잘 그리려고 욕심내기 보다는 열심히 그리는 데 의미를 두자."



새로운 생명탄생을 위해 말없이 몸부림치는 대자연을 생각할 때면,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화폭에 옮겨 그린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부족하다는 마음자세로 새로운 생명력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훔쳐보는 즐거움

한국미술사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구 혜 경 (서신갤러리 큐레이터)

한국의 역사에서 성풍속과 성문화의 변모를 찾기는 어렵지만 성문화의 원류는 암각화나 청동기에 묘사된 나신(裸身)의 인물상으로부터 성행위와 나체 인물상의 신라토우, 안입지출토목제남근, 성행위가 묘사된 고려 동경(銅鏡), 조선후기 풍속화와 춘화에 이르기까지 역사발전과 함께 발자취가 읽혀진다.

선사시대 암각화는 1970년 이후부터 발견되어 연구되어지고 있다. 울산의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고령의 암각화 등 경남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반구대 암각화는 제작 시기가 신석기부터 초기 철기시대까지 걸쳐 있고 구상형태로 되어있어 다양한 암각화를 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암각화의 중심부분에 해당하는 그림 그룹에서 보여지는 인물상이다. 남근을 드러낸 인물상은 고래 등 바다동물들이 모여있는 맨 윗 부분에 위치하여 손을 들고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다. 이 인물상은 한국미술사에서 남근을 드러낸 첫 사례로서 성기숭배 신앙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남근을 드러낸 표현은 풍어제나 산신제를 지내는 민속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두머리가 세운 남근은 그의 힘이 뻗쳐 큰 고래와 물고기를 잡게 해주기를 기원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한 선사시대 암각화에서 보여지는 바위구멍은 특정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신격화시킨 바위나 암벽, 그리고 고인돌에 크고 작은 구멍을 얕게 파놓은 경우이다. 대체로 '구멍'이 지닌 상징성 탓에 바위구멍은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고, '구멍파기'

는 곧 바로 성행위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이름도 '성혈(性穴)'이라고 부른다. 이 성혈은 아이 낳기를 바라는데에서 출발하여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행위로 쪼았을 것이다.

청동기시대에서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성기를 표현한 다산의 상징성은 4~5세기 고신라(古新羅)의 무덤에서 출토된 흙인형 토우(土偶)로 이어진다. 토기에 장식했거나 별도의 인형으로 제작된 신라 토우들은 여러 가지 동물상과 인물상들이 나타나는데, 나체의 인물조각은 남녀의 성기가 표현되거나 성행위를 형상화한 경우가 많다. 이 나신(裸身)들은 실감나게 사실적인 성행위를 표현하기도 하고 남녀의 성기를 애교스럽게 과장시키거나 여성을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있어 강한 수줄의 의미-다산을 기원하는-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토우는 손으로 몇 번 주물러서 투박하게 만들었어도 예술적인 조형미를 보여줄 뿐 아니라 과장된 성기-성기가 무릎까지 내려오거나 다리와 크기가 같은-를 드러내 놓고 있는 당당한 자세는 부끄럽기보다 오히려 해학적인 즐거움을 준다.

이외에도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남녀 혹은 음양의 교합(交合)을 상징하는 설화적인 도상들이 보인다. '견우와 직녀'라든지, 삼실총의 '교사도(交蛇圖)', '해신과 달신'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것들은 선사시대의 암각화와 마찬가지로 다산과 풍요의 생산력을 염원하기 위해 신격화되어 있고, 노골적인 고신라의 토우와 비교해 보면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가 아니어서 더 상징성을 나타낸다.

통일신라시대는 귀족사회로 그들의 성문화는 풍류적인 유흥의 공간인 포석정이나 안압지를 통해 가늠된다. 특히 귀족들의 성풍속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제 남근이다. 그 물건은 실물크기(?)로 리얼하게 조각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 앞쪽에 작은 혹같은 것을 붙여놓고 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렇다면 이 목제 남근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두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왕족여성이나 후궁들의 자위행위 도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들 갖기를 기원하는 신앙적 용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그 당시 상류사회 여성들의 성풍속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가부장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허용되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아마도 대범한 귀족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낸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 밖에도 고려시대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 유일한 성교상은 동경(銅鏡)의 뒷면에 장식된 네 가지의 체위를 부조로 표현한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문화의 하이라이트인 조선시대는 국가이념인 성리학의 도덕정치와는 반대로 억제속에서 더 활발한 성풍속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유교사회의 이중적인 성의식은 조선 사대부들이 추구한 풍류와 생활문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중성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에로틱한 면모가 때론 노골적으로, 때론 은밀하게 드러난다.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즐겨 사용한 문방구 중에 복숭아연적을 보면, 복숭아는 다산과 장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형태는 여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연적을 어루만지면서 간접적으로 즐기는 은근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정선의 〈박연폭포〉그림은 음양을 조화시킨 화법으로 폭포와 소(沼)는 여성을 나타내고 폭포를 떠받치는 바위는 바위는 남근을 연상케 형상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골적으로 표현한 〈陰陽山水畵〉는 남녀의 성기형상을 염두에 두고 그려져 있어 해학적인 운치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 이후 풍속화가 발전하면서 남녀의 애정표현은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풍속화는 발생초기에는 민중의 생활상을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후기에 이르면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에 의해 사대부의 생활상이나 일상의 민간생활로 그 소재가 확산되고, 문예발전속에서 새롭게 부상한 교양계층의 경제력과 맞물려 분방한 여성행각이 춘화라는 장르까지 개척시켜 나간다. 김홍도가 농촌생활상을 중심으로 서민층의 일상적 삶을 중심으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신윤복은 여속이나 노골적인 남녀의 애정표현을 자신의 예술세계로 끌어들여 대담하게 색정(色情)을 표출하였다. 신윤복의 〈혜원풍속도첩〉에는 기방풍속에 두세 쌍의 행락과 남녀의 밀회가 중심이며, 승려가 끼거나 색정을 돋우는 여속장면, 무속, 주막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간은 봄, 가을이 많고 야밤풍경이 설정된 점은 유흥과 남녀의 정욕을 살리기에 좋은 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야밀회 月夜密會〉나 〈단오풍정 湍午風情〉은 화면안에 훔쳐보는 제3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어서 호기심과 짜릿함이 배가 된다. 이 훔쳐보는 인물설정은 춘화(春畵)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춘화는 조선후기 세속적이고 부패한 사회여건과 맞물려 경제성장을 토대로 사대부는 물론 민간, 여성, 불가(佛家)의 람들에 이르기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조선후기 사

회는 성리학의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먼저 춘화가 발달한 중국이나 일본의 작품들이 유입되었을 때는 거부감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의 춘화와 달리 변태적이거나 최음적인 소재를 노골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조선적인 춘화의 특징을 형성하게 한다.

'김홍도印'이 찍혀있는 〈사계춘화첩四季春畵帖〉은 계절에 맞게 야외에서 벌이는 성희장면을 가지각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물의 필선 뿐 아니라 배경산수의 회화성이 뛰어나다. 또한 이 춘화첩에는 승려와 양가집 여인, 노인부부와 같은 색다른 계층의 성희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승려와 여인의 성희그림은 당시 문란한 사회상을 엿볼 수 있지만 이 그림의 해학미는 문틈으로 몰래 훔쳐보는 동자승의 표정에 있다. 역시 우리 춘화만이 지닌 해학미이고 낭만성이다. '훔쳐보기' 장면은 '신윤복印'이 찍혀있는 〈건곤일회첩乾坤一會帖〉에서 어린 소녀를 통해 나타난다. 이 훔쳐보는 사람들은 춘화마다 등장인물들이 각기 다른데 동자승, 어린소녀, 기생 등 성회장면에 맞게 해학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춘화의 해학미는 다른 춘화에서도 보여진다. 작가미상의 〈무산쾌우첩巫山快帖〉에는 댕기머리 소년과 소녀가 집안 뒷켠에서 하는 장면이 설정되어 있는데 소녀가 잡고 있는 나무 절구통과 절구공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은근하게 상상력을 발동시킨다.

이처럼 우리 춘화의 성희장면들은 단순히 도색적인 성희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사의 하나로 표현한 것이어서 동시대에 그려진 중국이나 일본의 춘화와 구분되어 조선적인 품위와 예술성이 보여진다.

지금까지 선사시대부터 조선후기에 이르는 미술품과 조형물을 통해 성문화를 살펴보았다. 性이라는 것이 인간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면서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민족의식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연구가 미비한 상태지만 현대의 성문화를 올바르게 밝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일제시대 이후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성문화의 변화는 문화적 혼돈과 갈등의 현상이며, 굴절된 현대의 성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우리 선조들의 성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한 자료를 발판삼아 성숙한 현대의 성예술이 창조되길 바란다.

섬진강 4
누님의 초상

김용택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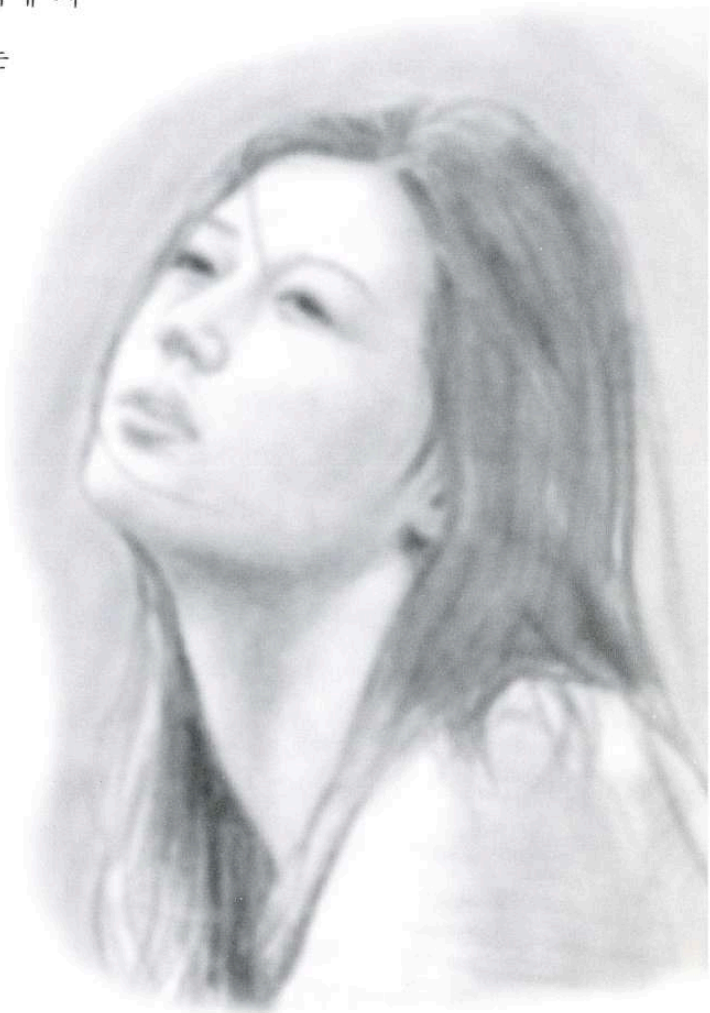
누님. 누님들 중에서 유난히 얼굴이 희고 자태가 곱던 누님. 앞산에 달이 떠오르면 말수가 적어 근심 낀 것 같던 얼굴로 달그늘진 강 건너 산속의 창호지 불빛을 마룻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염없이 바라보고 서 있던 누님. 이따금 수그린 얼굴 가만히 들어 달을 바라보면 달빛이 얼굴 가득 담겨 지고, 누님의 눈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그 그렁그렁한 눈빛을 바라보며 나는 누님이 울고 있다고 생각했었지요. 왠지 나는 늘 그랬어요. 나는 누님의 어둔 등에 기대고 싶은 슬픔으로 이만치 떨어져 언제나 서 있곤 했지요. 그런 나를 어쩌다 누님이, 누님의 가슴에 꼭 껴안아주면 나는 누님의 그 끝없이 포근한 가슴 깊은 곳이 얼마나 아늑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안은 누님은 먼 달빛을 바라보며 내 등을 또닥 거려 잠재워주곤 했지요. 선명한 가르맛길을 내려와 넓은 이마의 다소곳한 그늘. 그 그늘을 잡을 듯 나는 잠들곤 했지요.

징검다리에서 자욱하게 죽고 사는 달빛. 이따금 누님은 그 징검다리께로 눈을 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지요. 강 건너 그늘진 산속에서 산자락을 들추며 걸어나와 달빛속에 징검다리를 하나둘 건너올 누군가를 누님은 기다리듯 바라보곤 했지요.

그러나 누님. 누님이 그 잔잔한 이마로 기다리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니란ㄴ 것을, 누님 스스로 징검다리를 건너 산자락을 들추고 산그늘 속으로 사라진 후 영영 돌아오지 않을 세월이 흐른 후, 나도 누님처럼 마룻기둥에 기대어 얼굴에 달빛을 가득 받으며 불빛이 하나둘 살아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누님이 그렇게나 기다리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니며 그냥 흘러가는 세월과 흘러오는 세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나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과 헤어져 캄캄한 어둠속을 헤매이며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과 만나고 또 무엇인가를 기다렸는지요.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아픔과 슬픔인지요 누님.

누님, 누님의 세월, 그 세월을, 아름답고 슬픈 세월을 지금 나도 보는 듯합니다.

누님, 오늘도 그렇게 달이 느지막이 떠오릅니다. 달그늘진 어둔 산자락 끝이 누님의 치마폭같이 기다림의 세월인 양 펄럭이는 듯합니다. 강변의 하얀 갈대들이 누님의 손짓인 양 그래그래 하며 무엇인가를 부르고 보내는 듯합니다. 하나둘 불빛이 살아났다 사라지면서 달이 이만큼 와 앞산 얼굴이 조금씩 들춰집니다. 아, 앞산, 앞산이 훤하게 이마 가까이 다가옵니다. 누님. 오늘밤 처음으로 불빛 하나 다정하게 강을 건너와 내 시린 가슴속에 자리잡아 따사롭게 타오릅니다. 비로소 나는 누님의 따뜻한 세월이 되고, 누님이 가르쳐준 그 그리움과 기다림과 아름다운 바라봄이 사랑의 완성을 향함이었고 그 사랑은 세월의 따뜻한 깊이를 눈치 챘을 때 비로소 완성되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님. 오늘밤 불빛 하나 오래오래 내 가슴에 남아 타는 뜻을 알겠습니다. 누님. 누님은 차가운 강 건너온 사랑입니다. 많은 것들과 헤어지고 더 많은 것들과 만나기 위하여, 오늘밤 나는 사랑 하나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 불빛을 따뜻이 품고 자려 합니다. 누님이 만나고 헤어진 사랑을 사랑하며 기다렸듯 그런 세월. 그 정겨운 세월..... 누님의 초상을 닦아 달빛을 받아 강 건너 한자락 어둔 산속을 비춰봅니다.



계절 지나가는 좁은 목, 한뼘루 상념

곽병창(전주전통문화센터 관장)

창 밖 풍경을 보세요.

창 밖 풍경이 자꾸 바뀌어 갑니다. 푸르른 시냇가의 키 큰 나무들이며 그 곁의 작은 덤불숲, 건너 아파트 뒷산 남고산 능선이, 그리고 더 멀리 아스라이 뵈는 고덕산 가을 경치가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렁찬 매미 울음으로 하루가 가고 오던 자리였습니다. 초록물이 배어 나올 듯 짙푸른 풍경이 있던 바로 그 곳입니다.

전통문화센터의 찻집 다향에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쏟아질 듯 창 안으로 밀려 들어 온 풍경을 바라보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일상의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까운 천변 나무 한 그루는 이제 막 잎들을 다 털고 고즈넉이 서서, 하늘을 향해 여린 가지 끝으로 손사래를 쳐 댑니다. 땅이 밀어올린 제 필생의 수신호인 셈이지요. 허공을 향해 쑥스러운 듯 내민 손, 그 누군가를 간질이는 듯한 몸짓으로 지상 약 20여 미터 높이의 미풍에 한들거리고 있는 그 가지 끝을 보면서 사람 사는 일을 생각합니다. 나무는 제 평생 그렇게 자기 자리 한 번 옮겨 앉은 적 없이도 제 구실 다하며 계절을 보내고 맞습니다. 이럴 때면 더욱, 부산하게 싸돌아다니면서도 제 구실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서 한없이 초라한 마음을 가눌 길 없습니다.

나무뿐인가요? 제 몸 안의 온갖 기운 다 모아서 나무를 허공으로 밀어 올리는 땅의 기업, 대지의 한평생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한껏 더럽혀 놓은 땅일지라도, 불평 한 마디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때가 되면 제 소산의 자식들 있는 힘껏 키워내지요. 철철이 옷 갈아 입히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저 영원한 연인인 하늘을 향해 진수성찬의 풍경들 총동원해가지고 구애의 몸짓을 해 대는 것 아닌가요? 철이 바뀌어도 그 현란한 치장은 멈출 줄 모르고, 연년세세 해가 열두 번 바뀌어도 절대 늙어 초라해 지거나 기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하늘이 이 현란하고 다채로운 땅의 구애를 놓칠 리 없어서 못 이기는 척 응답하기 시작하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 아닌가 싶습니다. 어김없이 어린 끝가지들만 남겨서 마지막 애처로운 손짓을 보내노라면 천상에서, 하늘의 답장인 듯한 형형색색의 단풍잎들이 흩날려 옵니다. 니 맘 다 안다는 듯이, 만날 날 언젠가 온다며 달래 주는 연인의 편지처럼요. 먼 하늘은 점점 아득히 더 멀어져 가고 짐짓 안타깝게 높아져만 가고, 그러다 마침내 더 먼 곳에서의 송신으로 흰 눈이 나부끼기 시작하면, 대지와 하늘의 장엄한 연애는 결실을 맺게 되겠지요. 온 세상을 덮은 흰 눈의 포근함. 저들의 저 호화무쌍한 한 해의 연애가, 겨울 따뜻한 이불 속의 동침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야 그 장엄한 연애 앞에서 한낱 노리개에 불과한 것-. 다만 그 약동하는 움직임의 한 자락을 붙들고 그저 그 순간 영원하겠거니 찬탄할 따름입니다. 장쾌한 연애담, 스펙타클 멜로드라마의 단역 배우에 불과한 존재입지요.



그리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저 탄복할 풍경 앞에서 망연해질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느끼는 멍한 느낌 바로 그것입니다. 무방비의 몽아상태가 되어 잠시 풍경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겠지요. 자질구레한 기쁨, 슬픔에 옥신각신하던 영혼들, 지루한 욕망에 싫증난 육신들, 일제히 가을 풍경들 앞에 두고 서서 멍청히 제 영육을 씻겨 달라고 애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제 정신 돌아오게 해 달라고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일이지만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길 가의 돌멩이, 똥개만큼이라도, 제 구실 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닷없이 그 풍경 깊은 속으로 들어가 한 구석 빌려 살면서, 가는 계절의 한 토막이라도 화폭에 붙들어 앉힐 궁리에 여념이 없는 화가들, 혹시 이런 심정일랑가요? 남의 연애를 안 보는 척 다 엿보면서, 죄 없는 제 가슴 쥐어뜯으면서, 나도 어서 커서 저 멋들어진 연애담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춘기 아이들이 이런 심정일랑가요?

이래저래, 뉘우치다가 흘겨보다가, 눈자위만 싸하니 아파오는 계절, 가을은 지나갑니다

호남제일성 전주의 정문 풍남문

이 동 희 (예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조선시대 전라감사가 부임할 때 전주성의 4대문 중 어느 문으로 입성하였을까? 서울이 전주의 북쪽에 있으니 거리상으로 북문이 가장 가깝다. 따라서 북문으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북문을 놓아두고 서문도 비켜서 남문으로 들어왔다. 이처럼 가까운 북문을 두고 전주성을 반바퀴나 돌아 입성하는 것은 남문이 정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 남대문도 그렇고, 전주도 남문이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다. 춘향전의 이몽룡이 과거급제하고 암행어사로 내려올 때 삼례를 지나 전주성을 들리는데 이때도, 떡전거리와 숲정이를 거쳐 북문과 서문을 지나 남문에 올라 전주성의 경관을 관망하였다. 전주성의 정문 그 남문이 풍남문이다.

남문을 『풍남문(豊南門)』(보물 308호)이라 함은 『풍패지향(豊沛之鄕)』의 『풍』자를 따다 붙인 이름이다. 풍패지향이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고향이 풍패인데서 유래한 것으로 건국자의 본향을 일컫는다.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선대들이 살았던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함경도 동북면과 함께 조선왕실의 풍패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전주성의 정문을 풍남문이라 명명하여, 이곳이 조선왕조의 뿌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풍남문의 성안쪽으로는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전주가 호남의 수부, 수도라는 뜻이다. 『풍남문』 편액은 전라감사 홍낙인, 전라감사 이서구, 명필 창암 이삼만 등의 글씨로 전해지나 분명치 않다. 『호남제일성』 편액은 헌정 8년(1842) 전라감사로 부임한 서기순(徐箕淳)이 쓴 것이다. 일제에 의해 성곽이 헐리고 옛 영화는 사라졌지만 호남제일성의 정문 풍남문은 전주의 자존심과 위세를 견지한채 제자리에 우뚝서 오늘날 전주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서문은 『풍패』의 『패』자를 따서 패서문(沛西門)이라 하였으며, 동문은 완동문(完東門), 북문은 공북문(拱北門)이라 했다. 그 위치를 보면 서문은 현재의 다가동 파출소 근처, 동문은 동문사거리, 북문은 오거리쯤 된다. 성문이 있었던 자리에 현재는 빗돌이 세워져 있다. 전라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宣化堂)은 현재의 도청자리에 있었으며, 전주부윤(현 전주시장)의 근무처는 옛 전주시청 현 중소기업은행 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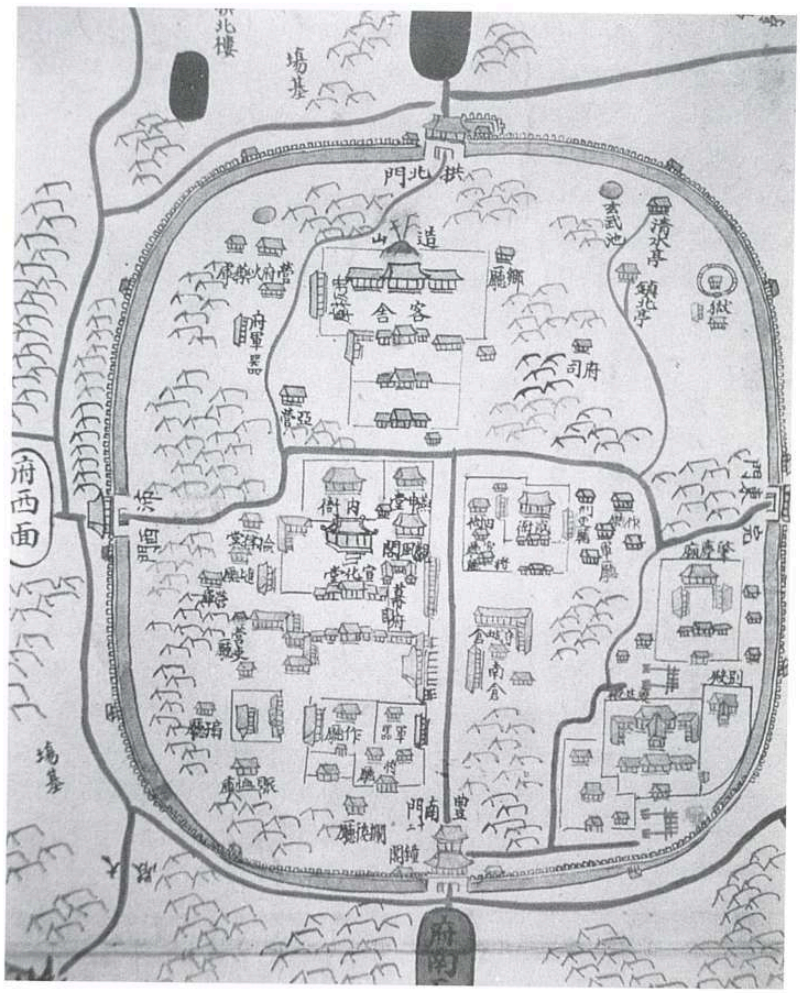
전주성이 처음 축조된 연대는 분명치 않다. 전라감사 조현명은 『명견루기』에서 태조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던 1388년(우왕 14)에 전라감사 최유경이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라감사 홍낙인은 『패서문기』에서 전주성의 축성연대를 알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동국여지승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전주성의 축조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려말에 이미 축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유경은 고려말 우왕 14년에서 공양왕 1년까지 전라관찰사로 있었다.

전주성 수축에 관한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1734년(영조 10)이다. 이 때 전주성이 너무 오래되어 퇴락했다는 이유로, 전라감사 조현명이 부성을 크게 개축하고, 4대문을 다시 쌓았다. 남문은 성문 내외를 아치형의 홍예문(무지개문)으로 쌓았으며, 성문 위에 3층의 문루를 세워 『명견루』라 이름하였다. 현재의 풍남문이 2층이니, 얼마나 웅장했을지 짐작이 간다. 남문외의 성문 누각은 모두 2층으로 하였다. 정유재란때 훼손된 성곽을 영조대에 이르러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명견루(明見樓)』라는 이름은 3층의 망루에 올라보면 앞이 탁 트여 잘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음양오행론에 의하면 남쪽은 '밝을 명(明)'이다. 임금이 남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잘 헤아려 정치를 잘하라는 뜻이다. 이런 이치로 볼 때 남문을 명견루라 한 것은 눈으로 잘보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전라감사로 하여금 백성들의 삶을 잘 돌보라는 경계의 의미가 있다.

전주성이 개축된지 30여년이 흐른 후 안타깝게도 1767년(영조 43) 3월 전주에 큰 불이 나(丁亥大火), 민가 1천여호를 불태우고, 문루도 모두 불탔다. 그리하여 그해 9월 전라감사 홍낙인이 3층이던 명견루를 2층으로, 2층이던 서문을 단층으로 복구하고, 그 이름도 『풍패』의 글자를 한자씩 따서 각각 풍남문과 패서문으로 바꾸었다. 『풍남문』은 이렇게 해서 탄생되었다. 동문과 북문은 영조 51년(1775) 전라감사 서호수가 도임하여 중건하고 각각 완동문 공북문이라 이름하였다.



이후 전주성은 동학농민전쟁 때 또한번 시련을 겪었다. 1894년 4월 27일 동학농민군이 밀고 들어 온 곳이 이곳 남문과 서문이다. 이 날은 서문 밖 장날로 장사꾼으로 위장한 수천명의 농민군들이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경)에 용머리고개에서 대포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수천발의 총소리와 함께 서문과 남문으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 삽시간에 전주성을 점령하였던 것이다. 용머리고개에 진을 치고 있던 전봉준은 대군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입성하여 선화당을 점거하였다. 농민군은 전주성 점령후, 완산에 진을 치고 있던 홍계훈의 경군과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주성의 상당부분이 파괴되었다. 이후 전주성은 일제에 의해, 전주 군산간 번영로가 뚫리면서 1907년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도기 시작하여 1911년에 풍남문을 제외하고 완전히 철거되었다.



현재의 풍남문은 1978년에서 1980년에 걸쳐 보수한 것이다. 중앙의 문루만 남아 있었는데, 양쪽의 날개 문루를 복원했으며, 이 때 옹성도 복원하였다. 옹성은 적의 공략으로부터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 바깥 주변을 둘러싼 성이다. 고지도나 기록에는 4대문 중에 북문만이 옹성으로 나타나 있다. 문루보수공사 당시 풍남문의 모습 또한 옹성이 아니었다. 문 바깥을 파헤치다가 옹성의 흔적이 나옴에 따라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복원하였다. 새로 쌓은 것이라 감흥이 덜하나 옹성 하단에 전주성 당시의 누런 성돌들이 세월을 담아내 옛맛을 느껴볼 수 있다.

그런데 풍남문이 원래 옹성이 아니었는데 잘못 복원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예컨대 옛지도에 풍남문이 옹성으로 그려져 있지 않으며, 남문으로 복이 들어오는데 구태여 옹성을 쌓아 이를 차단시킬리 없다는 것이다. 문루 옆의 치성을 옹성으로 오인해 잘못 복원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발굴과정에서 옹성이 찾아졌고, 옛 지도중에 옹성으로 그려진 지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옹성복원을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조 때 조현명이 개축하면서, 혹은 홍낙인이 2층으로 낮추어 지으면서 옹성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한다.

풍남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성문의 개폐를 알렸던 종이다. 처음 쌓을 때는 사방 문루에 다 종을 달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정유재란 때 사방 문루가 무너지고 종도 부서졌다. 광해군초 1609년경 다시 종을 달았는데 이때부터 남문에만 달았다. 그런데 종이 너무 작고 소리도 좋지 않아 오히려 부성 사람들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 또 튼튼하지도 못해 오래가지 않아 깨지곤 하였다. 이후 효종 6년(1655), 영조 7년(1731), 정조 20년(1796) 여러차례 종을 주조했으며, 임시조치로 북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결과였다. 영조 정해년에 큰 불이 나서 문루와 함께 종도 불타버렸다고 『완산지』에는 되어 있으나, 도사 이재후의 아들 이시종은 종만은 타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하였다.

왜란후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제대로 된 종을 만든 것이 순조 때에 와서이다. 1837년(순조 37) 전라감사 윤인영과 판관 이희평이 주조한 것으로, 종의 지름은 넉자 일곱치, 높이가 다섯자 아홉치이고 중량은 530관이었다. 새벽 오경 석점(五更 三点), 5시 30분에 33번을 쳐서 아침을 알리고 성문을 열였으며, 밤에는 이경(二更), 10시에 28번을 쳐서 성문을 닫고 통행을 금지시켰다. 전자를 파루종(罷漏鐘)이라 하고, 후자를 인정종(人定鐘)이라 한다. 중앙 문루 양쪽에 나지막한 문루를 붙여 성문을 오르내리게 하였는데, 이중 서편의 작은 문루가 종각으로 여기에 종을 메달아두었다. 이 종은 그 소리가 빼어나 부성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105년간을 버티면서 전주사람들과 같이 했으나, 안타깝게도 태평양 전쟁 때 일제에 의해 군수물자로 몰수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고철로 녹여지지는 않았다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산 수 화

이승훈

산수화는 마음의 고향을 그린 것임에 틀림없다. 백제시대 절터에서 발견된 산수문전은 백제시대의 산수화를 보여주는 견본이다. 회화적 표현 기법이 돋보이고 백제의 고졸하면서 우아한 면을 보여준다. 둥근 산모양과 부드러운 부조형태의 맛이 현대적이다. 구름과 산, 인간과 대지 등의 모습이 세속을 떠난 마음의 고향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목판화인 어제비장전 그림은 섬세함과 웅장한 자연의 모습이 담겨 있다. 불교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인 듯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보기 좋게 그리고 있다. 조선시대 전기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비단에 착색으로 된 그림인데 복숭아꽃과 신선의 세상이 펼쳐진 유토피아의 세계이다. 중국 동진의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와 관련이 있는 듯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의 테마는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조선 후기 민화인 십장생도 역시 산수 풍경을 중심으로 그려졌는데 오래 사는 소재로 그린 그림이다. 진경 산수화인 겸제 정선의 그림이나 관념적인 이러한 그림 역시 자연과 인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조화를 잘 살리고 있다. 이러한 동양의 산수화는 서양의 풍경화와는 다른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하겠다.

따라서 한국의 산수화를 감상할 때 거리와 시점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식적 그림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림이 주는 메타포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수묵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사의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준법과 발묵과 파묵 효과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이러한 효과는 마음 속에 산을 만든다는 흉중구학(胸中丘壑)을 표현한 것이다. 정극인이 상춘곡의 산수풍경을 즐기는 대목은 옛날이나 현대인이나 다 같이 즐거움을 동감할 수 있다.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알피두고 송죽 울울리예 풍월주인 되어셔라" 정극인은 자연경관을 유독 즐겨하여 벽과 병풍에 산수 풍경을 그려 놓고 마음에 맞는 벗과 함께 시흥과 취흥을 즐기고 또는 홀로 즐기

며 현실의 세계를 잠시 잊기도 했다.

인간은 이상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삼신산, 무산십이봉 등을 정원에 옮겨 왔다. 또한 그림을 그려서 항상 완상을 하였다. 선계(仙界)다운 절경을 담은 18세기 진경산수의 배경에는 조선 선비들의 기행 탐승하는 풍류적 성향 및 이이(李珥)의 석담구곡(石潭九曲), 송시열(宋時烈)의 화양구곡(華陽九曲), 김수증(金壽增)의 곡운구곡(谷雲九曲) 등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받아 그것을 조선산천에서 실현하고자 한 이상주의적 은일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에 이르는 그림 중 하나가 도원류의 그림일 것이다.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같이 안중식의 도원문진(호암미술관 소장)과 그 제자인 이상범으로 이어지고 변관식의 무릉도원 그림도 도화촌을 그리고 있다. 도화촌이 없다 할지라도 산수화의 대부분은 빼어난 승경지요 아름다운 곳이며 영원한 고향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실경이든 관념산수이든 산수화에 녹아 있는 세계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묻어 있는 것이다.

수묵산수화가 중국 회화사에 나타난 것은 당말오대를 전후한 시기이다. 당대 이전에는 거의가 인물화의 배경으로 그려지다가 새로운 인식으로 산수화가 대두되었다. 노장사상과 위진현학(魏晉玄學), 그리고 산림문학(山林文學)을 그 배경으로 하여 자연주의가 형성되면서 독립된 그림 양식으로 발달하였다. 代末 宋代 전시기에 걸쳐서 산수화는 꾸준한 발전으로 원대에는 사대가 모두가 산수화의 높은 경지에 이르고 청대까지 그 전성기를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고려조의 불교시대가 끝나 가는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수화는 강한 채색을 주로 하는 청록산수화와 금벽산수로부터 점차적으로 수묵이 주류를 이룬다. 산수화에 많이 나타나는 전통 소재는 금강산전도, 계회도, 탁족도, 사시팔경도, 소상팔경도와 적벽도 등이 있다. 동양인의 대자연관을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그림 양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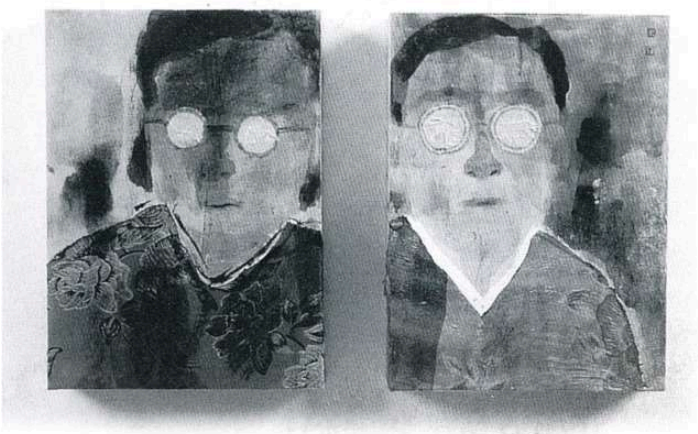
현대 산수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 마음 속을 염원하면서 감상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재현하여도 획기적인 기법과 개성이 나타난 그림일지라도 그 본연의 바탕에 고향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출저 생략)

인간-기억으로의 수묵여행!

이 철 규(예원대 교수)

오세나의 작업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5년 전 졸업동기 전시모임인 9498전에서이다. 그의 첫 인상에서 받았던, 강하게 풍겨 나오는 작업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나의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다.

일단 그는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작가이며, 술 한잔ㅇ 인생에 대한 적지 않은 감정을 적절하게 풀어낼 줄 아는 작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노라면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 젊은 날의 초상 그 흔적이랄까? - 녹녹히 베어 나온다. 요사이 젊은 작가들이 표현과 형상에 치우쳐 자기의 감정을 화면에 옮기는 힘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았을 때 오세나의 작업에는 여느 젊은 작가에서 볼 수 없는 진솔한 힘이 있다. 젊은 세대답지 않게 그 힘을 '수묵'이라는 재료를 빌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서신갤러리에서 보여준 최근의 작업은 색채의 사용이 절제되고 있다. 색이라는 것이 원래 동양에서는 세속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널리 적용되었으며 정신적인 것, 이념적인 것의 반대되는 쪽에 있었다. 현세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형식의 그림들은 한결같이 색채로 치장되어왔다고 볼 때 그의 수묵의 선택은 세속과 타협치 않으려는 작업관과 그의 기억 속에 스쳐지나간 수많은 색을 절제된 단 하나의 색 '수묵'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수묵이라는 것은 농담의 미묘한 조화에 의해 무궁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운필에 의해 그 생명이 좌우된다. 선염에 의한 농담변화가 기법구사라면 운필은 골격을 이루는 데, 즉 운필은 그림의 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절한 선염과 운필이 그의 작품에서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데 빠른 붓 놀림과 느린 선염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유년, 청소년, 대학시절 등 그의 기억 속에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담겨 있는 진상들을 여과 없이 수묵의 힘을 빌어 한지인형 같은 입체물과 젊은 날의 휑한 안경을 낀 인물로 집약시켜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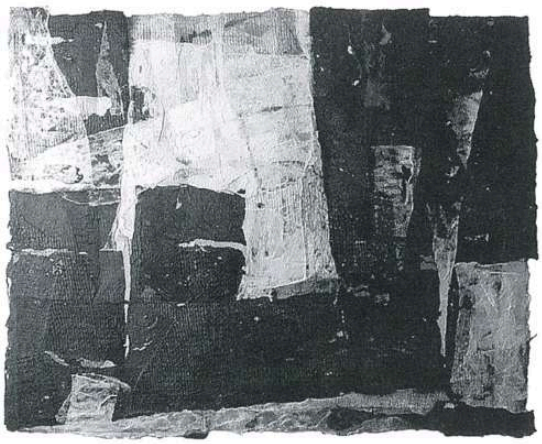
"그래서 사람들은 추억이란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 순간 치열했던 시간들을 그윽하고 투명한 먹빛으로 바꿔놓기에..."라는 그의 독백처럼 화면에 흔적 남기기를 하고 있다. 그의 기억에 남아있는 흔적을 안경 낀 인물을 통해, 또 한번 안경 너머로 한번 더 걸러낸 기억들을 투명한 먹빛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그의 그림에는 한국화가 나아가야 할 한 방향과 장래성을 볼 수 있다. 그의 심상 깊은 곳에서 추억이라는 온갖 것들을 끄집어내어 화면에 옮기는 강한 힘과 솔직함,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수묵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 선염과 조화를 이루는 운필력 등 이런 면에서 오세나 라는 흔치 않는 젊은 작가를 주목해 볼 필요충분 조건이 있는 것이다.

도드리의 미학-자연으로의 회귀!

이 철 규(예원대 교수)

그는 휴머니스트이다!
그는 자연주의자이다!
이 두 문장으로 그를 대변 할 수 있을까? 그는 그의 또래들과는 다른 놀이 문화가 있다.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면서 말초적인 놀이문화에 빠져있는 젊은 세대와는 다른 그만의 놀이가 있다. 조그마한 것에도 아파하고 즐거워 할 줄 아는 놀이, 풍족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 줄 아는 그 만의 놀이에는 - 휴머니즘과 자연주의 - 가 깔려있다. 다시 말해 휴머니즘과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노장사상의 자연회귀본능 (逍遙遊의 세계)이 담겨져 있다. 이런 면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돌아간다'는 의미의 도드리를 작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는 작업하는 행위를 놀이로 생각하고있다.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구도를 잡고 어떤 색을 사용할까? 하는 고민보다는 내면의 세계 즉 心像을 통해 걸러진 순수함 그 자체를 재미있고 즐겁게 표현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逍遙遊의 세계라 할까! 그의 작품의 내면에는 -그의 성격이 그렇듯이- 즐겁게 자연과 함께 한판 신나게 놀아보려는 놀이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자연을 극복의 대상이 아닌 함께 어우러짐의 조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마치 현재의 자연을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화면 위에 닥지를 한겹 한겹 붙이고 칠하고, 다시 붙이고 칠하는 반복을 통해 곪아터진 상처를 치유하듯 자연을 치유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물질문명으로 인한 자연파괴에 대한 남다른 사고에 의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그의 성격이나 작품에서 잘 나타나듯이 일단 그는 매우 근면하고 성실한 작가이다. 그가 하는 작업이 한지를 한겹 한겹 바르고, 붙이고, 말리고 다시 붙이고, 말리고, 칠하고, 뜯어내는 반복의 연속작업이다.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보려거나 게으르면 할 수 없는 작업인 것이다. 이러한 근면이 작업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에 남다른 많은 작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문제의식이나 젊은 날을 고민의 흔적이 구석구석 베어 나오지는 않지만 제작과정에서 많은 손을 요하는 것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채성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여느 젊은 작가와는 다른 끈기와 노력이 있기에.....
그의 근면과 놀이로서의 미술하기가 함께 동거해 나가기에 .....

그 곳에도 내 동포들이...



가슴 속 깊숙이 그리고 머릿속 모든 세포들에 각인된 것은 금강산의 절경도 교예단의 묘기도 온천욕의 매끄러움도 온정리 휴게소의 맛있는 음식도 아니다.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날까지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 진 숙

등판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듯이 색 바랜 윗저고리를 입은 사람들이 한 떼 지나간다. 넓은 자갈밭에 간간이 심어 놓은 채소를 돌보기 위해 고랑고랑 사람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 이번 수해가 심한 듯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서로의 등에 물난리에 내려온 듯한 돌들을 짊어지고 바삐 오고 간다.

나이 어려 보이는 군인들이 커다란 나무를 베어 무엇엔가 쓸 듯이 손질을 하고 있다 길고 널따란 배 과수원에 배는 하나도 달려있지 않고 아니 아예 열리지 않은 듯이 풀만 무성하다.

깡마른 체격에 키도 유난히 작아 보이고 얼굴은 자연 그대로 새카맣게 그을려 있다. 철망 너머보이는 학교는 텅 비어 있는 듯하다. 금강산 방문 3일째 되는 날 삼일포 가는 길에 내 눈에 비친 모습이다. 전날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가 본 팔상암의 전경이 순간 꿈인 듯 오늘 본 그들의 모습에 오버랩이 되면서 무엇인지 모를 것이 가슴 한 가운데를 두드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 물 기가 고이고 콧잔등이 가려온다. 물론 이런 감정은 순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에 맞춘 나만의 감정이다. 그들 표정 어디에서도 어두운 구석은 찾을 길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표정은 편안하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우리를 향해 환히 웃으면서 오래오래 손을 흔들어 주었다.

북한 체험은 연수를 위해 떠지지 않는 눈을 부비면서 새벽 3시에 관광버스에 올라탔다. 자다 깨다 정말 비몽사몽간에 도착한 속초 항, 떨리는 마음으로 금강산 관광증을 받아 목에 걸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주의사항을 수십 번 듣고 나서야 설봉호에 올랐다. 처음 본 룸메이트들과 대면 인사, 여자들끼리 모이면 으레 하게되는 수다를 떨고 망망한 바다를 보고 4시간여 지나니 인공기를 단 배가 한 척 다

가와 한참 후 장전항에 정박허가를 내렸다. 긴장된 마음으로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금강산 관광증을 목에 걸고 개미도 질서를 어기면 잡아 갈 듯 조용한 장전항에 내리니 커다랗게 틀어 놓은 '반갑습니다'가 우리를 반긴다. 까다로운 세관을 통과하여 그곳 직원들의 상냥한 인사를 받으며 관광버스에 올라탔다. 눈앞에 펼쳐지는 기암괴석들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간간히 무심하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호기심어리게 바라보며 온정리 휴게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여기가 정말 북한 땅인가 의심할 정도로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일부를 옮겨 놓은 듯하여 적잖이 실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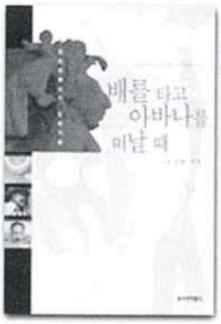
다음날 새벽에는 구룡폭포를 보기 위해 새벽같이 서둘렀다. 계곡마다 흐르는 빨려들 듯이 맑은 물, 명경지수가 무엇인지 50여 년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팔상암 정상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풍경은 아름답다는 말 이외에 어떠한 단어도 떠오르질 않는다.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달려 내려와서 본 구룡폭포는 내 숨이 곧 멈추어도 후회할 것이 없다는 감동에 쌓여 있기에 충분했다. 턱에 닿아 있는 숨을 고르면서 내려오는 길에 한 모금 마신 삼록수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새로운 힘을 솟게 하는 명약이었다. 가지고 간 초콜릿을 그곳 아리따운 아가씨와 나눠 먹으면서 서로 웃음으로 나눈 이야기는 오랜 여운을 남겼다.

모란봉 교예단의 신기에 가까운 묘기는 탄성과 눈물을 아울러 불러냈다. 곁에 같이 관람하던 어떤 이는 그들이 실수 할 때마다 불려가서 맬르 맞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다. 조선시대 임금님의 피부병도 치료했다는 온정리의 온천욕은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감은 머리를 사흘정도 감지 않았다.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한숨이 곳곳에서 나올 듯한 고려려관의 초라한 모습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삼일 내내 먹었던 맵지도 짜지도 않아서 내 입맛에 딱 맞았던 온정리 휴게소의 음식맛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가슴 속 깊숙이 그리고 머릿속 모든 세포들에 각인된 것은 금강산의 절경도 교예단의 묘기도 온천욕의 매끄러움도 온정리 휴게소의 맛있는 음식도 아니다. 삼일포 가는 길에서 보았던 내 동포들의 모습이다. 그곳에도 나와 똑같은 내 동포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 무작정 주자,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날까지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곳에도 내 동포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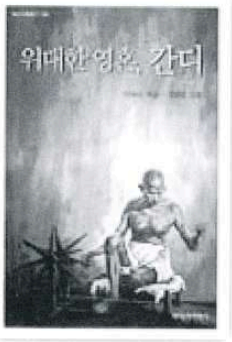
읽을만한 책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때(라틴아메리카 문화기행)

이성형 / 창작과비평사 / 13,000원

다채로운 문화와 인종의 모자이크가 빚어내는 매혹적인 라틴아메리카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라틴아메리카 전문가가 쓴 본격 문화기행서이자 라틴 입문서로, 쿠바 · 페루 · 칠레 · 멕시코의 문화와 역사, 사회현실을 120여컷의 컬러사진과 함께 담았다.



▶위대한 영혼, 간디

이옥순 / 창작과비평사 / 6,000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간디의 일생을 인도사학자인 이옥순씨가 어린이를 위해 쉽고 흥미롭게 풀어 썼다. 영국유학을 마친 변호사로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조국의 독립과 가난한 동포들을 위해 헌신한 간디의 삶이 감동적을 다가온다.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흰소가 끄는 수레

박범신 / 창작과비평사 / 7,000원

93년 절필을 선언하고 유배자처럼 용인 근교의 외딴집에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칩거한 박범신이 인기작가였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작이다. 불행한 가정사와 소설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회고하는 표제작 등 5편의 연작과 절필 직전에 발표한 「그해 내린 눈 지금 어디에」가 실려 있다. 제3회 원광문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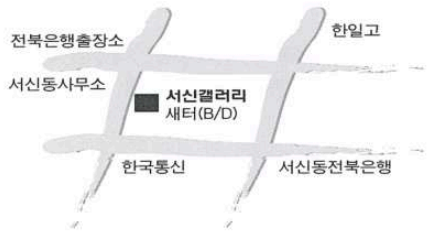


▶이슬람문명

정수일 / 창작과비평사 / 18,000원

지난 1,400여년간 폭력과 타락의 종교이자 문명으로 폄하되었던 이슬람. 이슬람문명도 다른 문명과 마찬가지로 신앙체계만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영역을 포괄한다. 이슬람문명 본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숱한 왜곡에서 벗어나는 길은 물론 이슬람을 '문명'으로 읽는 것이다. 이 책에서 문명교류사의 권위자인 저자는 이슬람문명 속으로 독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전북지역 화랑가 안내



서신갤러리

· 주소: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2-2 새터B/D B1 ☎(063)255-1653
· 전시면적:본 전시장(약 40평)/아트샵(약 12평)
· 대관료:유료대관-1일 10만원(상시접수)
무료대관:포트폴리오 심사(매년 12월 중순까지 접수)
초대전-년6회
기획전-상 · 하반기 2회 실시



한마음갤러리

· 주소: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8-9 ☎(063)220-1200(원장실)
· 전시면적:7층 전시실 13평에 병원 전체에 전시가능(복도)
· 대관료: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소정의 작품을 감사의 표시로
증정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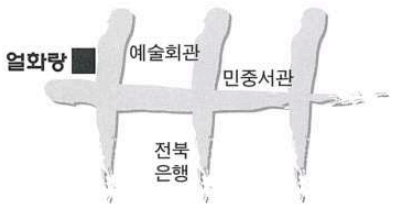
전북예술회관

· 주소: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104-5
☎(063)284-4445, 286-2679 FAX:(063)286-2678
· 전시면적:1층 1실(96평) · 2실(57평)
2층 1실(66평) · 2실(47평) · 3실(47평) · 4실(33평)
· 대관료:평당 500원



삼성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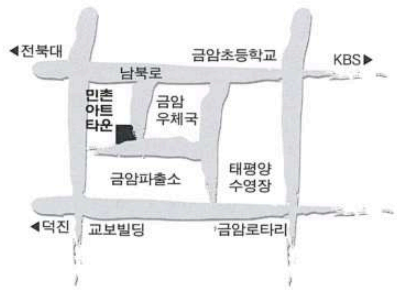
· 주소: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1층 : ☎(063)270-2241 2층 : 270-2459 ARS안내 : 252-9400
· 전시면적:1층, 2층 각 100평
· 대관료:1일 기준 대관료 10만원, 수도료 3만원, 전기료 7만원,
냉난방기 9만원



얼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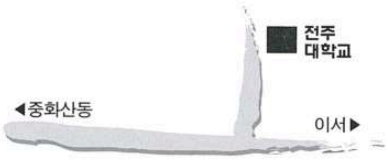
· 주소: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38-3
☎(063)285-0323
· 전시면적:총 43평
· 대관료:1주 80만원

전북지역 화랑가 안내



민촌 Art센타

· 주소: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46-51
☎(063)275-0695 FAX:252-5878
· 전시면적:100평/25평
· 대관료:1일 20만원/10만원
· 부대시설:찻집, 민촌가든, 주차장 150대-무료, 잔디밭 100여평(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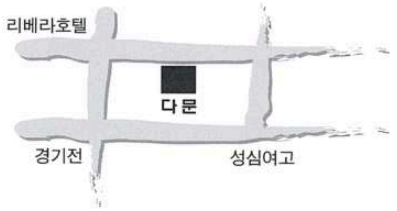
전주대학교 화랑

· 주소: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전주대학교 예체능대학 미술학과내
☎(063)220-2732(미술학과 사무실)
· 전시면적:80평
· 대관료:1일 20,000원, 전시기간 자유



프랑스문화원

· 주소: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685-44 고려상호금고 4층
☎(063)286-8114
· 전시실:1개 강의실:3개 카페테리아



다문 전시공간

·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2가 82
☎(063)288-8607
· 전시면적:15평
· 대관료:무료



경원아트홀

·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4-3 ☎(063)286-0345
· 전시면적:30평
· 대관료:10일 70만원

- 기획 · 제작: [redacted]
- 대표: [redacted]
- 발행일: 2002. 11. 12
- 편집위원: 이승훈
- 전북여성회 2002년 행준 제10호
- 발행 · 편집인 / 서진숙

편지글

[redacted]

보고 있는 가을하늘 노란 은행잎과 단풍이든 경기전의 풍경, 담쟁 할 수 부채 없는 자연 앞에서 전북여성회 가 걷어 준 세월들을 되새겨 봅니다.

전북여성회가 20년도에 창립되어 용해로 지금까지 여성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 회원님들과 그 동안 우리단체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 훗날 고목의 당당한 지팡처럼 초심의 자세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회원님들의 영적인 사랑으로 (株)_____

서진숙
심소연
이승훈
이우정
이진숙
이월규
이원배
정미림
최명남

2002. 전북회화회 정기총회

-일시 : 2002. 12. 21

-장소 : 송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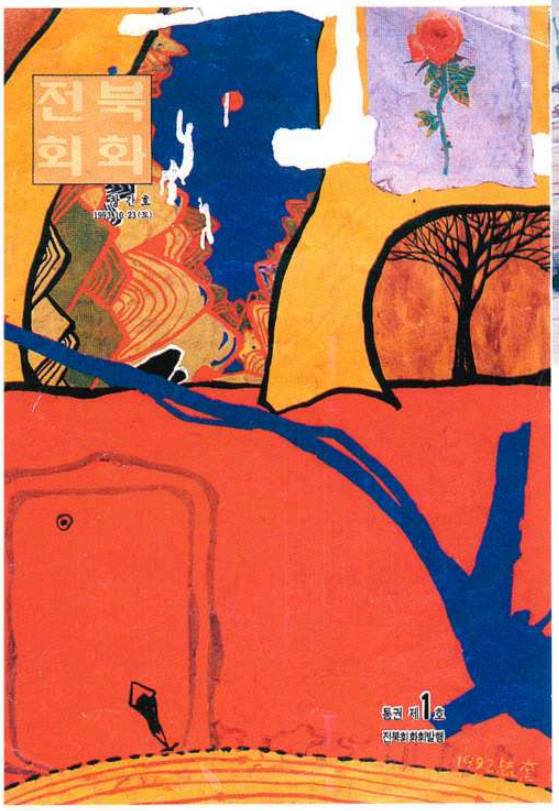
2003년 전북회화회 활동계획

1월 2002년 활동 반성 및 보고, 회계결산

신입회원 추천 및 심의

2월 동계세미나 및 특강

신입회원 환영회







전북회화

통권 제2호
전북회화회발행



전북
회화

2001년 통권 제9호
전북회화회발행



2002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책자는 문예진흥
기금에서 지원 받았음